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22호

Wednesday, April 1 2026 A

## 트럼프 “호르무즈스서 알아서 원유 구해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종전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4월 6일이 다가 오고 있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이 서로를 향한 공습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란과 반(反)미국·이스라엘 무장세력 ‘저항의 축’ 간 밀착이 심화하며 이란 전쟁이 점차 고차방정식화 하는 모양새다.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 공격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는 “하이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곳곳을 폭격했다”고 발표했다. 헤즈볼라 또한 성명을 내고 “하이파의 해군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격으로 바잔그룹이 운영하는 하이파의 정유시설 증류 탱크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하이파 내 정유시설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쟁이 계속되며 이란과 헤즈볼라,



30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 후티 반군 등 역내 친이란·반서방 동맹인 저항의 축 세력의 단결이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이란 측이 후티 반군을 상대로 전쟁이 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흥해를 지

나선 선박들을 겨냥한 공격을 준비하고 압박 중”이라고 보도했다. 후티 반군은 앞서 지난 28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을 공식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 국가 당국자를 인용해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후티 반군이 흥해를 겨냥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장악하려 하면 후티 반군이 공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후티 반군까지 흥해를 동향하는 선박을 막아설 경우 세계 경제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가자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하며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흥해 입구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바 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도 나섰다. 역내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란은 주변 중동 국가들을 향한 무차별 타격도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미군 기

지가 있는 국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도 진행 중이다.

미국·이스라엘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항공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31일 트루스소셜에서 밝혔다. 그는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연료를 구매하거나 스스로 해협에 가서 확보하라”며 “미국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사실상 무력화했고 어려운 단계는 끝났다”며 각국이 자력으로 에너지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뉴스맥스와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며 “이란 정권은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민구 기자

## 국방부 “이란 합의 안하면 더 강하게 타격”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31일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도 높은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덴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대이란 전쟁 전환 대안론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란은 알고 있다”며 “그들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보유한 (핵) 물질과 그들의 야망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군사 행동을 하고 싶

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할) 의지가 없다면, 전쟁부는 더욱 강한 강도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4월6일로 제시한 상태다. 이 기간 내 미국의 요구조건이 관철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발전소, 유정, 담수화 시설 등을 초토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해 무엇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를 적에게 알려주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며 “현재 적은 우리가 지상에

서 접근할 수 있는 15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지를 실행할 수 있다. 또는 전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이란과의 개전 이후 한 달 동안 1만1천개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B-52 전략폭격기의 이란 영토 타격도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30일 동안 우리는 1만 1천개 이상 목표를 타격했다”며 “공중 전력의 우세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처음으로 B-52의 육상 경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특기자 비자 승인 역대 최고

지난해 특기자 비자(O-1) 승인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경쟁이 심화되면서 O-1 비자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무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2016~2025년) 비이민 비자 승인 통계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O-1 비자 승인 건수는 총 2만15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1만5918건)보다 약 2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O-1 비자는 예술·스포츠·금융·학계·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다.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

의 성과를 입증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율은 약 80~8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별 발급 건수를 보면 한국은 558건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영국이 3023건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중국(1771건), 인도(1632건)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O-1 비자 신청 증가의 배경으로 취업 비자 제도 변화를 꼽는다.

정대현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규제가 강화되고 추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지원자들이 O-1 비자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변지매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 국무 “이란전쟁 후나도 전면 검토”... ‘대서양동맹’ 깨지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0일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된 뒤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토는 80년 넘는 ‘대서양 동맹’의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과 안보 비용과 관세 등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쟁에 비협조적인 유럽 동맹국들에게 노골적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과잉을 사실상 거부한 나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reexamine)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군기 주둔권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주둔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어해



지난 2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겠다고 약속했던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은 영공 사용을 거절하고 그걸 자랑하며 기지 사용을 거부했고, 다른(나토)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나토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하고, 미국이 필요할 때는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고, 그건 계속(나토에) 참여하면서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이익이 돼야 하고, 일방통행 길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중에 다룰 시간을 가질 것이고, 지금은 이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거나, 나토 조약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나토에서 탈퇴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종전 협상을 위해 이란이 양보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선 ‘핵무기’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은 핵을 신속하게 무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들은 모든 드론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통행료 징수 등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해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엄청난 선례를 남기게 돼 미국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고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조건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불법적 조건은 일어나지 않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에도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협상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제나 협상과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노력이 실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대하는 47년 된 정권엔 여전히 외교나 평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상대해 본 적 없는 다른 사람들”, “매우 합리적”이라고 표현한 이란의 협상 상대에 대해선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이란 내부의 다른 세력들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이란의 이전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물론 그들은 실제로(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우리는 그 제의를 매우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의회의사당 난입 가담자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경찰 과잉 진압으로 피해 입었다” 주장

지난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극우단체로 알려진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회원 등 46명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1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

들이 2020년 대선 결과 인중에 항의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음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신체적 부상 뿐만 아니라 화상, 뇌진탕,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경찰관 폭행 혐의

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도미니크 페올라와 크리스토퍼 워델 등이 포함돼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들은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태로 인해 모두 1583명을 기소하고 이중 127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70명 중 1009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200여명은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22년까지 다양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20일 취임 첫날 약 1500명의 관련자들에게 전면 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 이후 연방법무부는 진행 중이던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를 취하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을 종결시켰다.

김윤미 기자

## WUV, 지역 사업가 창업지원 행사 열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버지니아 워싱턴대학(이하 WUV)은 오는 4월 15일(수) 오후3시 캠퍼스에서 2시간동안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시작하는 채택기반 사업 창업 가이드’를 주제로 비즈니스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의 창업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와 ‘채택기반사업 창업 절차와 정책 및 실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 담당부서인 SBSD(Fairfax County Small Business Support Division) 소속 소상공인 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해 창업

준비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실제적인 조언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WUV 창업센터 출범식도 함께 열린다. WUV 창업센터는 단순한 취업을 넘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WUV와 함께 센터가 공동 참여하여 설립한 이 센터는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한 통합 창업 지원 허브로서 자

금 조달, 사업 계획 수립, 마케팅 전략, 네트워킹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AI 기반 한국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무료 제공되고, 지역 사회의 창업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지며 실전 중심 창업 정보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특전으로 주어지게 된다.

본 행사는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미리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한국어) <https://bit.ly/wuvstartupkor>, 등록: (영어) <https://bit.ly/wuvstartupeng>, 문의: 버지니아워싱턴대학교: 703-333-5904 (Ext. 222), [wuvevent@wuv.edu](mailto:wuvevent@wuv.edu), 함께센터: 571-325-9336, [syoon@hamkaecenter.org](mailto:syoon@hamkaecenter.org)

홍말빛 기자

**워싱턴 날씨 (°F)**

2일(목)	63-51	5일(일)	71-42
3일(금)	81-63	6일(월)	59-39
4일(토)	85-66	7일(화)	57-40

4월 1일(수) 86-5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mailto: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장 3½

**RENT** **특점**  
가치어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장 2.2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남편 뜻 잇는다” 또 기부

### 고 최상훈 회장 부인 최옥계 씨 부산대 조형물 10만불 쾌척

2024년 모교 부산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한인 기업가인 고 최상훈 아스트로닉(Astronic) 회장의 부인이 이번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부산대학교 건축 초창기 캠퍼스 부지 마련에 큰 도움을 준 리처드 윌트컴 장군을 기리는 조형물 건립을 위한 기금을 쾌척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고 최상훈(기계공학과 59학번) 아스트로닉 회장의 부인 최옥계 동문(가정학과 60학번 입학)이 올해 부산대 개교 80주년과 미주지역 남가주 동문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모교인 부산대에 윌트컴 장군 조형물 건립비 10만 달러를 기부 약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 출연 약정식은 지난 26일 국내에서 개최된 ‘부산대 미주지역 동문회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 미주지역 남가주 동문 4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한편, 모교와 동문사회 발전에 뜻을 모았다.

고 리처드 윌트컴(1894~1982) 장군은 전 유엔군 부산군수사령관으로, 부산대 설립 초창기에 캠퍼스 부지 50만



지난 26일 최옥계 동문(오른쪽) 기금출연 약정식. 왼쪽은 부산대 최재원 총장.

평(약 165만㎡)과 공사 자금을 지원해 대학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부산대는 윌트컴 장군의 공헌을 기리고 건학 초기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계기로 총장공관으로 사용됐던 교내 정학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윤인구 초대 총장과 윌트컴 장군을 기념하는 조형물 건립과 함께 기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옥계 동문은 1960년 부산대 가정학과에 입학해 결혼 후 남편 고 최상훈 회장과 함께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며 남편의 활동을 곁에서 지원했다.

고 최상훈 회장은 1982년 알리소비에호에서 전자장비 납품업체인 아스트로닉을 설립해 굴지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대학 발전기금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60만 달러를 출연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상훈 회장은 지난해 2025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별세했다.

김나혜 인턴기자

# 한인 자매, 발레 문턱 낮췄다

### 에덴·조던 임의 ‘발레 레인’ 감각적인 숏츠로 문턱 낮춰 무용수 특징·공연 쉽게 해설

전통 발레가 유튜브를 통해 대중화되고 있다. 그 흐름의 중심에 한인 자매가 있다.

에덴 임(22)·조던 임(24) 자매는 유튜브 채널 ‘발레 레인(Ballet Reign)’을 통해 전통 발레에 Z세대 감성을 더한 콘텐츠로 전 세계 팬층을 끌어들이며 주목받고 있다. 구독자 수는 6만7400여명이다.

이들의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짧고 감각적인 숏츠(Shorts)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해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영상이다.

숏츠는 1분 안팎의 짧은 분량으로 주요 장면을 빠르게 보여주거나 동작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발레를 처음 접하는 시청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 입문형 콘텐츠다. 또 일반 영상은 세계적인 발레 공연

을 분석하며 작품의 역사와 제작 배경, 안무, 표현 등을 깊이 있게 설명한다. 나탈리아 오시포바, 로베르트 볼레 등 정상급 무용수의 스타일과 특징도 쉽게 풀어 전달한다.

또한 ‘중독성 있는 발레 순간들’, ‘수명을 늘리고 사기를 두 배로 높여줄 것’ 등 흥미를 끄는 제목을 활용해 발레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일상에서 즐기는 콘텐츠로 재해석한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짧은 영상의 접근성과 전문 해설의 깊이를 동시에 갖춘 콘텐츠 전략은 발레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관객층을 끌어들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두 자매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4남매 중 맏이와 둘째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새벽에 일어나 발레 수업 영상을 보며 동작을 따라 할 만큼 발레에 몰두했다. 조던 임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레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송운서 기자



유튜브 ‘발레 레인’ 채널의 조던과 에덴 임(오른쪽) 자매. (유튜브 캡처)

# 무상 페인트칠도 못하는 한인회관

### 독지가 지원 제의에도 진전 없어 재단에 쏠린 소유·관리권에 발목 “시스템 개선 필요” 목소리 커져

한인사회 한 독지가가 한인회관 외관 개선을 위해 페인트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건물 소유권 문제로 승인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지원임에도 내부 승인 절차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LA 지역 한인 독지가가 노후화된 한인회관 외관 개선을 위해 건물 외벽 페인트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인회 측에 제안했다.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 측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외벽 페인트 작업이 소유·관리 구조와 관련된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재단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



는 만큼 실제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관 소유주가 별도 비영리 법인인 한미동포재단이라는 점이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LA한인회관은 지난 1975년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한인 사회 성금 약 30만 달러로 마련된 공공 자산이다.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후 한인회가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조직인 만큼 권력 갈등에 따른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산 보호 목적으로 건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영리 법인이 설립됐다. 해당 법인이 현재의 한미동포재단이다.

한미동포재단 이사이기도 한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최근 재단 이사회에

서 독지가의 외벽 페인트칠 제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단 이사회가 월 1회 열리는 구조여서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예정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지는 불확실하다. 한미동포재단 원정재 사무국장도

LA한인회관 전경(왼쪽). 회관에는 한미동포재단 주도로 진행됐었던 개축공사의 기부자 명단이 있다. 김상진 기자

지난 24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외벽 페인트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된 단계일 뿐,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포재단이 보수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원 사무국장은 “재단은 지금까지 한인회 측의 개보수 요청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없다”며 “건물 노후화 문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실내의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구조적 문제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인회의 건물이 노후됐음에도 보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시대는 변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수십 년 전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두 단체가 보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절차를 조율하고 승인 과정을 간소화해 외관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서비스 지역  
애넌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13 ~ 4/17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트럼프 기념관 47층 초고층 빌딩으로

## 눈 안치우고 주행하는 차량 불법 메릴랜드 법안 통과 유력

### 대형 황금빛 동상도 트럼프 SNS에 조감도 공개 '이민자 랜드마크 가린다'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고층 건물로 된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내에 건설 예정인 대통령 기념관의 조감도 영상을 공개했다.

100초 분량의 영상에는 47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주변을 압도하는 규모로 등장한다.

꼭대기에는 첨탑이 솟아 있고 건물 상단에 큼직하게 '트럼프'라는 이름도 새겨진다.

대통령 전용기로 보이는 항공기 옆으로 황금색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다.

방문객들이 백악관 집무실을 재현한 공간을 둘러보는 모습도 영상에 들어갔다.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형상화한 대형 금빛 동상이다. 강당처럼 보이는 공간에 청중석을 바라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팔을 치켜든 대형 동상이 서 있다.



트럼프 기념관 조감도.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캡처]

입구로 추정되는 구조물 위에도 대형 금빛 동상이 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상일 가능성이 크다.

영상대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관 안에 최소 2개의 대형 금빛 동상이 들어서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재임기의 기록을 보관하는 도서관을 세운다.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의 역할을 하며 민간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작년 말 트럼프 기념관이 47층 높이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47대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관은 88미터 높이의 마이애미 프리덤 타워 옆에 세워지는데 주민들 중에서는 트럼프 기념관이 프리덤 타워를 가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프리덤 타워는 1960년대 쿠바 난민들이 수용됐던 곳으로 현지 이민자 사회에는 역사적 가치가 큰 랜드마크다.

메릴랜드 의회가 차량 주행 전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행 전 제설법(Clear Before You Driv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전에 지붕, 후드, 트렁크 등을 포함한 차량 외부 전체의 눈을 제거하고 앞유리 등 모든 창문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위반 시 차량 유형과 피해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벌금이 부과된다.

일방 승용차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행 중 얼음이나 눈이 떨어져 재산 피해나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벌금은 최대 1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경찰이 눈이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정차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과속 등 다른 적발 요인이 있을 경우 정차 명령을 내린 후 2차적으로 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 푸드스탬프 가당음료-캔디 등 수혜 금지

버지니아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SNAP(푸드스탬프) 수혜 대상 식품에서 설탕이 추가된 음료의 구매를 제한할 예정이다.

버지니아 복지부(VDSS)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오늘(2026년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이 구매 제한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로 연기됐다.

설탕 또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탄산음료(다이어트 콜라, 제로 음료 등 포함) 및 에너지 드링크는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가당 탄산수와 100% 주스, 레몬에이드, 차, 우유, 유아용 조제분유 등 비

탄산음료는 여전히 구매 가능하다. 가당 음료 외에도 초콜릿 바, 껌, 캔디, 설탕 코팅된 견과류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정책의 일환으로, '영양 공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이 탄산음료나 캔디 같은 비영양가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만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외에도 텍사스, 웨스트버

지니아 등 현재 약 12-18개 추가 유사한 제한 조치를 승인받았거나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이 SNAP의 수혜 금액을 줄이거나 신청 자격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매달 받는 SNAP 지원금 액수는 변하지 않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종류'만 줄어드는 것이다. 2026년 10월부터는 계산대에서 가당 탄산음료 등을 결제할 때 SNAP 지원금이 담겨있는 EBT 카드가 승인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이나 가구원 수에 따른 신청 자격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트럼프 조롱 '황금변기' 지난달 30일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마가(MAGA)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왕에게 어울리는 왕좌'라는 제목의 황금 변기에 앉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백악관 리모델링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작품이다. [로이터-연합뉴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금(미약소 물)  
웨이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망명 왕세자 팔레비 ‘자유 이란’ 선언

CPAC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 계획·이념 넘은 연합 구축  
미국 전략 동맹, 1조불 경제 효과  
“우리 손에 달을 만큼 가까워져”

비운의 왕세자로 불리던 레자 팔레비, 그가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단에 올라 단호하게 외쳤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MIGA)!”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인 그는 2013년 망명 정부 조직을 구성한 뒤 미국에서 이란 신정 정권에 대한 반대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팔레비는 지난 25~28일 나흘간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에서 열린 CPAC에서 사실상 주인공이었다.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팔레비는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텍사스에서 이란 신정 정권의 완전한 종식을 주장하며 ‘포스트 이란’ 구상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중동 질서 재편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CPAC 피날레를 장식한 28일 연단에 올라 “이란의 자유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며, 우리 손에 달을 만큼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찾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핵 위협도,



지난 28일 이란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가 CPAC에서 관중들의 환호에 손가락 비(V) 포즈로 화답하고 있다.

[로이테]

테러도, 인질극도 없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나라가 아닌, 미국과 자유 세계에 안정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레비는 이란이 수십 년간 배척해 온 자유의 가치를 되찾는 과정을 ‘해방’으로 규정하며, 이란의 해방이 국제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 이란은 21세기 최대의 미개척 경제 기회의 땅”이라며 “고학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9300만 인구

가 해방된다면 향후 10년간 미-이란 전략적 파트너십은 미국 경제에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팔레비는 정권 전복 이후 첫 100일간의 재건 로드맵인 ‘이란 변영 계획(IPP)’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군·관료 조직 일부도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공화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좌우를 초월한 연합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란은 이라크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공백 없이 민주주의 체

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팔레비를 향한 이란계 미국인 참가자들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관중들은 연설 도중 “킹 레자 팔레비”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팔레비는 현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수백만 이란 국민이 내게 민주주의 전환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 자신이 아닌 조국과 국민을 위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이 현재 상황을 스

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이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팔레비는 이란이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은 곧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자유의 가치를 회복하면 미국은 다시 위대한 동맹을 얻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에 죽음을’ 외치던 나라가 ‘미국에 축복을’이라고 말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과 파괴를 숭배하던 정권과 달리, 오늘날 이란 국민은 생명과 자유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CPAC 기간 중 참가자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공식 여론조사 ‘스트로 폴(straw poll)’에서는 응답자 다수가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부에서도 전쟁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공화당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는 주류 언론의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정권 축출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이란을 공격한 데 대해 응답자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스트로 폴은 CPAC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비공식 여론조사로, 보수 진영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결과를 직접 챙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 기자

## 이란 “NPT 탈퇴” vs 미 “하르그섬 점령”

물밑 협상 시도하면서 압박  
파키스탄 “미·이란 대화 개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30일 양측은 물밑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상대를 압박하는 심리전을 이어갔다.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사실을 언급하는 동시에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도 함께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NPT는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고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국제 조약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겠

다는 취지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30일 “이란은 과거에도, 지금도 절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의회에서 NPT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알라에딘 보루제르디 의원도 이날 “서방과 이스라엘의 침략이 이란의 생존을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더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조약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NPT 탈퇴는 이제 검토 대상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란 의회는 ▶NPT 탈퇴 ▶기존 핵 제한 조치 폐지 ▶평화적 핵 기술 개발에 관한 우호국들과의 새로운 국제조약 지지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

라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함께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원한다”며 “우리가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기내 약식 회견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폐조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상 중재역을 자처한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자국에서 곧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석유 수출지 하르그섬.

[로이테]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트 총리가 언급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직접 대면 방식인지, 중재국을 통한 간접 대화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직항 재개

지난 29일 중국 국적 항공사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베이징-평양 직항 노선 운항을 2020년 1월 이후 6년여만에 재개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안내하던 한 조선족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이날 평양행 항공편이 재개됐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평양을 향한 CA 121 항공편의 전체 승객은 10여명에 그쳤다.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평소에 운항하지 않던 노선이라고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에어차이나는 서우두국제공항과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양방향 정기편을 매주 월요일 운영한다.

중국은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양방향 여객열차 운항도 지난 12월 6년 만에 재개하며 북한과의 인적 교류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에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동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라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 아리랑 USA 공동체

Arirang USA Community

## 팍타스코 벨리 주립공원 무궁화동산 ‘아리랑 산책길’ 명명식

아리랑 산책길 명명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아리랑 USA 공동체는 1차로 2023년 식목일을 맞아 한국의 나라 꽃인 무궁화를 통해 모국 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엘리콧시티 팍타스코 주립공원내에 무궁화를 심어 메릴랜드 주립공원내에 첫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습니다. 2차로 2024년에 무궁화동산을 가로지르는 길에 ‘아리랑 무궁화 길’로 명명하여 한글과 영문 표지판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3차로 지난해 2025년에는 무궁화동산의 중심에 한국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 무궁화 명상쉼터’ (쉼터)를 만들고 한글과 영문의 간판을 달았으며, 4차로 금번에 현재의 아리랑 무궁화 길에서 약 1마일 정도의 산책로를 연장하여 조성하게 되는 이 산책로 이름 명명식(아리랑 산책길)을 다음과 같이 갖습니다.

**일시** 2026년 4월 4일 (토) 오전 11시

**장소** 팍타스코 주립공원 내 무궁화동산  
8020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문의** 무궁화 동산 조성위원장: 권명원(301)385-9821  
부위원장: 이선옥(410)598-3321  
부위원장: 폴 정(443)355-7771



권명원



이선옥



폴정

참석하신 분 선착순  
50명에게 무궁화 나무를  
나누어 드립니다.

주최: 아리랑 USA 공동체  
Arirang USA Community

회장 장두석 Tel: 443-691-7968

#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소득하위)

(1인당)

**중동발 쇼크에 26조 '전쟁추경'**  
1인당 고유가 지원금 10만~60만원 지역화폐 등으로 이르면 이달 지급 석유 최고가제 보전 등에 5조 편성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검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서민층이 겪는 이중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빠르면 이달 중 지역화폐 등 형태로 준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과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제 상환(1조원) 등으로 나뉜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가운데 급한 불부터 끄고 가겠다는 의도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란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국민과 경제에 미치지 전에 지체 없이 추경안이란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소득 수준별(건강보험료 기준)로 가구원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이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골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된 후 나눠 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위한 예산 5조1000억원도 반영했다. 이 중 4조2000억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목적의 예비비다. 나프타 수급 대응,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 대응 예산 등도 추가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도 6개월 동안 일반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한다.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자금도 투입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석유화학업계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쓰인다. 9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실행된 건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현안 토의 과정에서도 긴급재정명령을 재차 말했다.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지 않다. 입법에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다"며 "사교가 묶이면 안 된다. 좀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

부했다.

헌법 76조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내외·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이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언급한 데는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여건과 고유가 위기가 심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동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추경안 심사가 빨라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원석 기자, 윤성민 기자

USD/KRW  
**1,536.20**

31일 오후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장중 1530원선을 돌파했다.

## 환율 17년래 최고

1530원 마감... 코스피는 5050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으며 약 17년 만에 1530원 선을 넘어섰다. 증시는 수직낙하해 5000선을 위협했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530.1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9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고유가 장기화와 한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5월물은 배럴당 102.88달러로,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5월물도 112.78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가 상승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0.4%포인트 낮추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 논쟁'이 내려가고 있는 점도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

외국인 투자자는 3월 말 말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35조1581억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날도 외국인이 3조8423억여원을 순매도한 여파로 코스피는 전장 대비 4.26% 내린 5052.46으로 장을 마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유가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다영·박유미 기자

## 김재섭 "정원오, 여직원과 칸쿤 출장"... 정측 "11명 간 공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선두 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이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한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멕시코 방문 구청 직원 동행 논란**  
김 "여직원, 문서엔 남성으로 조작" 정측 "성별 오기는 구청 단순 실수" 경찰에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고발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을 가려

서 제출했다"며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니라면 또는 공문서를 허위 조작한 게 아니라면, 굳이 성별을 가리고 줄 이유가 뭐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여성 직원이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몹시 과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와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

면, 정 후보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청 직원 A씨와 멕시코-미국을 방문했다. 1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3일 '국제 참여민주주의 포럼' 세션 발표를 하고, 이후 5일 메리다로 이동해 6일 '세계민주주의 도시 서밋'에서 발표를 했다. 7일 버스로 칸쿤으로 이동한 정 구청장은 현지에서 한국연수단 평가회의를 하고, 9~10일 미국 오스틴으로 이동해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를 참관한 뒤 11일 현지에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기재돼있다. 예산은 총 2872만원이 쓰였다.

정원오 후보 측은 "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 "멕시코 시티-메리다-칸쿤 일정을 한국 참여단 11인이 함께 소화했다. 메리다 일정 종료 후 다음 일정을 위해 경유지로 항공편이 많은 칸쿤을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영익 기자

## 가치를 올려 판매하는 부동산 비키리

집을 고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감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남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 한스 스페셜 로컬 투어

**노퍽군악페스티벌+보태컬기든** 4월19일(일) \$249 **마감 임박** **한스 대형버스**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 NY허드슨 런치크루즈

+베슬+리틀아일랜드

당일투어 5월16일(토) **\$269**

**한스 대형버스**

유럽 감성이 담긴 한쪽의 그림

## 캐나다 나이아가라 몬트리올, 퀘벡

3박4일 5/22(금)-5/25(월) **\$950**

**한스 대형버스**

브로드웨이 최장기 흥행 NO.1 눈을 뗄수 없는 깊은 감동

##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온 킹

당일투어 6월20일(토) **\$289**

**한스 대형버스**

### 뉴욕, 캐나다, 워싱턴 DC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하세요!**  
 뉴욕 1박2일 5/8(금) 출발확정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4/23(목) 5/5(화) 출발확정 \$650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우드버리아울렛-뉴욕  
 나이아가라 유람선, 윌월드 전망대,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포함  
 4/13(월) 5/11(월) 출발확정

## 알래스카

예약 서두르세요!!  
 6박7일 8/6(목)-8/12(수) \$3,090 항공포함 인솔자:애나 김

- ✓ 크루즈로 스쳐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 알래스카의 대륙 깊숙이 들어가는 특별한 여정
- ✓ 마타누스카 빙하, 디날리 국립공원, 콜롬비아 빙하 크루즈까지 알래스카 핵심 절경 완전 정복
- ✓ 빙하와 설산, 야생동물과 대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알래스카 여행

특식 알래스카 최상품 연어회와 와인 제공  
 6시간 빙하 크루즈 포함

### 한스 인솔자와 함께 믿고 떠나는 한스 2026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	8박9일	\$3,890	애나 김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590	세라 정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6,590	재키 조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13박14일	\$5,390	조앤 한	
05/02(토)-05/13(수) 스페인 & 포르투갈 2차	10박11일	\$3,590	애나 김	
05/06(수)-05/18(월)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6,595	스페셜 기획!! 재키 조	
05/18(월)~05/26(화)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3,290	세라 정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11박12일	\$5,995	재키 조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 한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6박7일	\$3,090	항공포함 애나 김	
08/06(목)-08/12(수) 알래스카 앵커리지호텔 업그레이드	8박9일	\$16,400	재키 조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12박13일	\$12,900	조앤 한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7박8일	\$5,950	재키 조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 투어	7박8일	\$6,995	재키 조	
08/21(금)-08/28(금) 아이슬란드	7박8일	\$6,790	재키 조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6,790	재키 조	
09/07(월)-09/16(수) 북스페인+산티아고 순례길	9박10일	\$3,890	애나 김	
09/17(목)-09/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폴로미테	8박9일	\$3,590	세라 정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재키 조	
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13박14일	\$5,390	조앤 한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0박11일	\$3,590	애나 김	
10/05(월)-10/17(토) 예술의 전당 -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12박13일	\$6,595	스페셜 기획!! 재키 조	
10/8(목)-10/17(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세라 정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12박13일	\$3,490	조앤 한
10/14(수)-10/24(토) 한국의 맛, 가을 단풍 여행	10박11일	\$2,990	인솔자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30(금)-11/11(수) 일본 알프스 투어와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6(금)- 11/19(목) 요르단 & 이집트	13박14일	\$5,890	데이빗 한	
11/10(화)-11/19(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11/18(수)-11/27(금) 파타고니아	9박10일	\$7,095	재키 조	
12/05(토)-12/18(금) 하와이 뉴질랜드 시드니 여행	13박14일	\$6,790	재키 조	

###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시모어/ 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3박4일 5/22(금), 7/2(목) \$1,040 항공불포함

엘로스톤 5/8부터 3박4일 \$950 항공 불포함 매주 월, 금 출발

서부4대개년 5박6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http://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한글썼다 한자썼다 '1+1'... 수난의 광화문 현판

(한글·한자 병기)

## 다시 불붙은 현판 표기방식 논란

2023년 대대적인 복원 제막식을 했던 서울 광화문(光化門) 현판이 '한글 현판'을 둘러싸고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조선 고종의 경복궁 중건 당시를 원형으로 삼은 현판을 '시대정신'에 맞춰 조정하자는 안이 올 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기되면서다.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원칙론과 20세기 이후 공간 변화의 상징성을 내세우는 주장이 현판 글씨를 두고 부딪히는 모양새다.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한글 현판 추가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광화문 현판 토론회'는 이 같은 대립이 평행선을 달린 자리였다. 이날 발제에서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시류에 따라 문화유산을 변형하는 것은 과거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한글 현판 추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이진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국가 상징 공간에서 문자와 문화 차원의 정체성을 한글 현판으로 나타내자"고 주장했다.



서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기존 현판 외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두 현판이 나란히 걸린 경우를 상상한 이미지.

[사진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국민모임]

1968년 박정희 친필 한글 현판 설치 2010년 복원한 한자 현판으로 교체 이후 졸속 논란에 2023년 바뀌 걸어 한글단체 '한글 현판 쓰자' 주장 속 최근 '한글 현판 병기' 절충안 내내 의견 수렴 토론회서도 찬반 평행선

한글 현판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안"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은 "최근 BTS(방탄소년단) 공연이 보여줬듯 광화문은 세계인에게 K컬처의

성지로 여겨진다"면서 "한글 현판 추가 설치의 문화관광의 서사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최근 중국 자금성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한글 현판 병기"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화문 현판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그간 복원 과정에서 '원형의 실체'가 오락가락하면서다. 1868년 경복궁 중건 당시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쓴 광화문 현판은 6·25전쟁 때 폭격으로 목조 문루가 불타면서 함께 없어졌다. 1968년 복원 때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장려하던 '한글 전용화 정책'에 맞춰 직접 한글 현판을 썼다. 이후 경복궁 복

원 기준이 '고종 중건 당시'로 정해지면서 2010년 임태영 글씨로 복원한 한자 현판이 새로 걸렸다. 그러나 졸속 제작으로 목재가 갈라지는 사고가 난 데다 2018년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면서 이



중국 자금성 현판 '한자·만주어 함께' 명나라 때 축조된 자금성 건물엔 청나라가 집권 뒤 한자와 만주어를 병기한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은 용종문 편액(현판). [중앙포토]

후 '검은 바탕 금색 글씨'로 다시 제작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다중(복수) 현판'이 역지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민(건축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목조 건물 현판 자체가 한·중·일 등 한자 문명권의 산물인데, 한글 현판으로 동어반복하는 건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자금성 현판의 경우 청나라 집권 세력이 기존 한자어에 만주어를 병기한 것이라 맥락이 다르다고 하면서다.

한편 2024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한글 현판'에 동조할 당시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국가유산청 측은 이번에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 에너지 허리띠 더 졸라맨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검토

### 이르면 6월부터... 시행 땀 18년만 기후부 '관계부처 협의 뒤 결정'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엔 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2부제를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량 2부제는 격일로 승용차 운행을

금지해 '홀짝제'로도 불린다.

앞서 2008년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2부제가 시행됐다. 2002년 월드컵 기간엔 수도권에선 민간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교통량은 19.2%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6%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무원들의 출퇴근, 공공기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행 시점을 4월 6일 전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 “돈이 돈을 벌게 하라” Make your money work for you

### 3주 코스 재정클래스

**Lesson 1** 이자 공부와 재정 점검

**Lesson 2**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 찾기

**Lesson 3** 종합적인 절세 플랜

- 등록 : Karen Ahn 703-688-2645
- 등록비 : \$100
- 각 레슨 한 시간씩

등록 QR

### 대면 강의

**화요일** 저녁반 7pm est ~ 4/14, 21, 28

**금요일** 오전반 11am est ~ 4/10, 17, 24

### Zoom 강의

**수요일** 점심 1pm est ~ 4/22, 29, 5/6

**목요일** 저녁 7pm est ~ 4/16, 23, 30

### 클래스 장소

High Calling Financial  
10505 Judicial Dr. Suite 300  
Fairfax, VA 22030

\*개인 일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대면과 줌 수업 간 교차 수강이 가능합니다.

### Speaker

**Karen Ahn (캐런 안)**

-High Calling Financial CEO  
-Financial Advisor & Certified Tax Advisor

**Shelly Rhee**

-Real Estate Agent,  
Loan Broker

**Myung Chul Kim**

-Enrolled Agent,  
Financial Professional

## High Calling Financial

**703-688-2645**  
10505 Judicial Dr. #300 Fairfax, VA 22030

karenahn@highcallingfinancial.com

https://www.highcallingfinancial.com

재정 전문가 캐런 안이 현재 재무 점검 → 세금 절감 → 보험과 은퇴 준비 → 상속 계획까지 인생 전 과정을 돕는 종합 재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ADHD 약 먹고 운전해도 되나요” ... 정신질환 환자들 혼란

약물 범위에 항불안제 등 다수 포함  
의료계 “단속 및 복용 멈출까 우려”  
전문가 “용량 기준 등 구체화 필요”

2년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치료하고 있는 박모(32)씨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해 고민을 털어냈다. 그가 평소 복용하는 치료제(콘서타)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했다. 박씨는 “소셜미디어에서 ‘ADHD 약을 먹으면 운전자 처벌이 가중된다’는 내용을 보고 약을 바꿔야 하는지 의사와 상담했다. 안 바꾸기로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단속 강화가 임박하면서 정신과 진료 현상이 혼란을 겪고 있다. 처벌 대상 약물에 정신질환 치료 등을 위한 성분이 대거 포함되면서 자의적인 치료 중단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약물운전 처벌과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약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처벌받는다. 최근 약물 오남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앞으로 경찰이 약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를 발견하면 현장 평가에 나선다.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시켜 운전 능력을 확인한다. 2단계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시약 검사다. 양성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식이다.

문제는 약물의 범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합쳐 490종에 이른다. 콘서타 같은 메틸페니데이트(각성제), 항불안제인 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 자주 쓰이는 성분도 여러 포함된다.

## 약물 운전 단속 어떻게 이뤄지나

**1단계 현장평가**  
직선보행·회전·한 발 서기 등  
운전 능력 확인

**2단계 간이시약 검사**  
간이시약 검사 후 양성면  
소변·혈액검사 요청

**약물 범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4월 2일부터 적용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 환자들의 걱정이 큰 편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 상당수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치료제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문의하는 환자가 많아졌다”며 “앞으로 의사가 방어적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법 집행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회 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처벌 강화와 과도한 공포 조성이 결합할 경우 환자들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치료 중단에 따른 질환 악화가 더 큰 도로 위 위험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회장은 “생업상 운전해야 하는 환자들이 단속을 우려해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많은 사고가 정상적인 약물 복용보다 약물 오·남용,

불법 복용에서 발생하는데 (처벌 범위가)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수치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운전할 몸 상태가 아니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기준 구체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법적 용량 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단속 대상 약물, 정상 처방 환자 대처법 등을 정확하게 홍보해서 불필요한 공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김남영 기자

## 대구 50대 여성 캐리어 시신, 20대 딸 부부가 범행

“물위에 이상한 가방” 주민이 신고  
딸·사위 긴급체포, 범행동기 수사

어머니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린 20대 딸과 사위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오후 9시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딸과 그의 남편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50대 어머니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변에서 운동하던 한 주민이 “물 위에 이상한 큰 가방이

떠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캐리어를 수거해보니 안에 물에 떠다니는 영향 등으로 외관이 다소 변형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캐리어는 은색의 1인용 여행 가방으로 가방 안에는 신분증 등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곧바로 신원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은 당초 50대 한국인으로만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는 동시에 신천 주변과 이들 주거지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해 딸과 사위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신천변에 유기한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두 사람에게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줬더니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며 “살해 여부나 구체적 범행동기, 범행 방법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여성이 독극물 등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백경서 기자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경찰이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수색하고 있다.

## 국힘 뺀 6개 정당, 개헌안 합의 ... 장동혁 “지방선거 전 부적절”

우원식 “지금 이 역사적 기회”  
국힘서 10명 찬성해야 가결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처기 위한 개헌안 발의를 31일 공식화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공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 수준의 공론이 형성된 현 상황이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4·19 민주이념’만 담겨 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회의 계엄 사후 승인권을 도입하

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처지느냐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개헌안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197명(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에 동의 의사를 밝힌 6개 당 소속 의원 등은 187명

으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오전 우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며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다음 번 통치구조 개헌 때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 규정을 넣기 위한 전 단계 아닌가의 심된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상 5월 10일까지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김나한 기자

#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법원, 김영환 컷오프 제동...국힘 “주호영·이진숙도 돌아오나”

(충북지사)

국힘 “당황스럽다, 아노미 위기”  
즉시 항고 등 법적 조치 나서기로  
이정현 공관위원장, 결정 전 사퇴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공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아노미 상태에 빠질 위기”(지도부 인사)에 몰렸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컷오프 뒤 진행된 추가 후보 모집이었다. 당시 공관

위는 당규상 3일인 공모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후보를 추가 모집했고, 이에 따라 김수민 전 의원이 지원했다. 이미 ‘김수민 내정설’이 퍼진 상황에서 실제 추가 모집이 진행되자 조길형 전 총주 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예비후보 들은 항의하며 사퇴했다.

재판부는 “당원의 균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 기간(3일)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추가 지원엔 “김 지사 컷오프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았기에 동일 지위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초유의 컷오프 제

동에 국민의힘은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김 지사가 충북지사 경선에 복귀할 경우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우리로 당황스럽다. 새 공관위에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김 지사 측은 “법원 결정으로 경선 후보자 지위는 회복됐다. 경선 참여 등 향후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김 전 의원은 “제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물러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탈락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용 결정문 검토 뒤 즉시 항고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컷오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쇄신해야 하나까 자른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오죽했으면 비공개회의에서 공관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뛰쳐나왔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사태의 파장이 다른 지역까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선 의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시작일 뿐이고, 다른 지역으로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했다.

당장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된 대구시장 공

천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한 주 의원마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 또한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을 제외한 예비 후보 6인이 이미 지난달 30일 진행된 경선 TV토론회가 무효가 되는 등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부산 지역 의원은 “시·도지사뿐 아니라 컷오프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줄줄이 가처분을 걸면 국민의힘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사진) 공천관리위원장은 31일 김영환 지사 가처분 결정 전 사퇴했다. 임명 48일 만이다.

김규태·양수민·류효림 기자

## 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빨간날...교사·공무원·택배기사도 쉰다

법정 공휴일로...60개 법안 통과  
법사위원장에 여당 서영교 선출  
행안위 권철승, 복지위 소병훈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사와 공무원,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 국민이 매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공무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국회는 이날 해외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 안정 3법’ 등 비쟁법 법안 60여개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 금액 익금불산입률(해외에서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

세 시 감면하는 비율) 상향 특례 신설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저학 개미’의 국내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이뤄졌다. 추미애 의원

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비게 된 법사위원장에 서영교(서울 중랑갑·4선) 의원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240표 중 165표를 얻었다. 행안위원장은 권철승 의원(찬성 189표)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찬성 187표)이 뽑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자리에는 또다시 민주당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오소영 기자

## 발달장애 16세의 공통사랑, 교과서에 새겨지다

안드레군, 교과서 표지 작가로 선정  
생후 33개월부터 공통 그림 그려

“공통이예요. 제 친구예요.” 발달장애(자폐 스펙트럼)를 지닌 안드레(16)군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문자 이렇게 답했다. 공통은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자 친구다.

안군이 그린 공통 그림은 교과서 표지가 됐다. ‘2026년 특수학급용 초등미술 국정 교과서(미래엔·사진)’ 표지 작가로 선정되면서다. 5학년 교과서와 지도서 표지를 단독으로 장식했고, 6학년 교과서에도 다른 그림과 함께 실렸다. 예술계 관계자들은 안군의 공통 그림에 대해 “화려한 색감과 생동감 있는 표현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가 교과서 표지 작가 선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공통 그림은 생후 33개월부터 시작됐다. 말보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그런 속에서 안군의 공통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다. 그는 벽, 바닥, 옷에도 공동을 그렸다. 찰흙도 공통으로 만들었다.

부모는 전국 공통 박물관을 함께 찾아가고 공통 관련 책을 사주며 아들의 관심을 지원했다. 울산 동구의 집 안방은 아들 화실로 내렸다. 어머니 김석영씨는 31일 “아들이 말로 다 표현 못 하는 마음을 공통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관심은 달라지지 않

았다. 수업이 끝나면 공통 책을 펼쳤고, 쉬는 시간에도 공동을 찾았다. 아버지 안주영 씨는 “공통 그림이 많아지면서, 집에만 두고 보기에 아쉬워 공모전 같은 대회를 아내와 함께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안군은 2018년 세계학생미술대회 은상, 2024년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 삼성증권 등 기업과 기관이 작품을 소장했고 굿즈로도 제작됐다. 김씨는 “수익 일부를 발달장애 아동 지원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군은 오는 5일까지 울산 동구 문화공방방어전에서 개인전 ‘공통이 건네는 안녕’을 열고 있다. 공통 그림 등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네 번째 개인전이다.

고등학교가 된 안군은 미술대학 진학과 해외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군은 말했다. “공통은 강하고 멋지고 예뻐요. 공통 친구들과 즐겁게 살며 공통 박사가 될 거예요.” 김윤호 기자

## 실탄 소지한 채 보안검색대 그대로 통과

김해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남성이 보안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던 한국인 승객 A씨의 가방에서 실탄 1발이 발견돼 보안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전 김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올 때 이미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가방 속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보안검색 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고의성과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사는 30대 한국인 남성이며 테러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의 실탄 소지 경위를 파악하는 등 남성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현예슬 기자



항공 보안검색대 이미지. 일러스트 제미니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39,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센터빌 타운홈**

**\$680,000**

방4/화2.55/차고2  
End Unit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트 완료

**SOLD**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 “로봇 막으면 공장 사라진다” 현대차 노조에 날아든 경고장

The JoongAng Plus

K로봇 연구

로봇 도입 맞서는 현대차 노조

“로봇을 막을 순 없겠소. 그래도 두 팔 벌려 환영할 순 없잖아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20년 가까이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김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최근 진지하게 노동조합 가입도 고민하고 있다. 변심의 계기는 ‘아틀라스 쇼크’였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대전전시회(CES 2026)에서 공개된 이 로봇은 꼭 노동자의 퇴장을 예고하는 서막 같았다.

현대차가 2028년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노조는 “합의 없는 로봇 도입은 반대”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일자리 위협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건데,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혁신이 편리함을 넘어 결국 인간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는 우려는 현실이 될까. 노조라는 든든한 보듬을 들어 두는 편이 나올까. 누군가는 이 움직임을 ‘신(新)러다이트 운동’이라 부른다. 이 싸움의 승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조는 마침 친군만마를 얻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조의 쟁의 대상에 포함한다.

현대차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상도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이 회사 노사단협은 회사가 신기술·기술의 도입,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 전환배치 등을 계획할 때는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 1항). 한 대형 로펌의 노동 전문 변호사는 “단협과 노란봉투법을 감안할 때 현대차가 노조 반대를 무릅쓰고 아틀라스를 당장 국내 공장에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아틀라스가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는 더 있다. 미국 공장에 투입돼도 2~3년은 실증해야 한다. 양산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



아틀라스

옵티머스

사이버원

피02

현대차, 노조 로봇 도입 반대 지속  
미국 공장으로 국내 물량 이전할 것  
BMW·테슬라도 로봇 투입 진행 중

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로봇 양산 능력 확보의 일환이다.

노조가 이걸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노조는 이런 현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1월 22일 소식지)는 원론적 반대 입장을 반복할 뿐이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0년과 21년에 14.2%를 찍은 이후 하락했다. 2024년엔 13%까지 떨어졌다.

현대차 노조도 조직력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은 2024년 말 3만9662명으로, 4만 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계속된다. 현대차의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가 매년 2000명 이상인데, 신규 채용은 700여 명에 그친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1300명(2000명-700명=1300명)씩 직원이 준다면 6년이면 전체 노조원의 5분의 1(7800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노조가 ‘아틀라스, 동의 없이 1대도 못 들여온다’는 거요?ampo성으로 봐야죠.”

『울산 디스토피아』의 저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진단한다. 현대차 노조는 2025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년 연장(만 60세→64세)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양 교수는 “노조는 새로운 기술이나 로봇 도입을 위한 재직자 훈련이나 재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정년 연장이 될 것 같나’고만 묻는다”고 말했다.

노조가 정년연장 등을 이유로 로봇 도입을 계속 반대한다면 어떻게.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차가 꺼낼 카드는 하나뿐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울산 등 국내 공장의 물량을 아틀라스가 도입된 미국 공장으로 야금야금 이전해 가는 것.

박 교수는 “휴머노이드를 적극 활용해 다크팩토리(완전 무인 공장)를 지향하는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로봇을 착각 도입 중이다. BMW는 4월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 생산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범 투입해 6월부터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테슬라는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올해 초 전기차 생산라인에 1000대 이상 배치했다.

게다가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종원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연구단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태동기인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연구개발 속

도보다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기술 변화 속도에 사회 시스템이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봇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노동의 종말을 예고하며 로봇세 도입을 주장한다. 유럽연합(EU)은 1월부터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인공지능법(AI Act)’을 시행 중인데, 휴머노이드 로봇과 일자리 문제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에선 ‘아틀라스 충격’ 이후인 지난 2월초 AI와 로봇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로봇 도입에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당량거철(螳螂拒輻)은 수레바퀴를 보고 달려드는 사마귀의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이다. 이 대통령이 현대차 노조를 향해 이 사자성어를 애둘러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봇과 공존을 앞둔 회사나 노동자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업이 산업 현장 노동자의 리스킬링(reskilling, 기술 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봇이란 수레에 올라타는 법을 고민하는 방식이다.

로봇공학자인 이주호 일본 리스메이칸대 정보이공학부 교수는 “사람들은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만 기억하지만 그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려면 학습과 유지·보수 인력들이 여전히 꽤 많이 필요하다”며 “업무가 바뀌는 직종의 시프트(shift)가 이뤄질 수는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다고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장주영·김효성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매년테일 좋은 위치에 있는 빈집 2명,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으로 매매. 3/26일 마켓에 올리실 예정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타이슨스 DMV 근처에 위치한 잘 생긴 싱글하우스. 방 3, 5, 현재 터크 외고관 \$6,200/월 렌트 (7/31 종료)	5/5 입주가능 Coming Soon	\$3,300 고품/생활/학군/안전한 인기있는 터운하우스 단지. 방 3, 3.5, Nice Owner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마켓에 나온 주말 바로 계약 완료, 셀러 + 바이어 So Happy 3/17 세팅먼트 완료	RENT	주재원 (3년)
5901 Sunstone Ln, Haymarket, VA	워 집 팔고, New 빌더 홈 구입. 3/27 세팅먼트 예정	4/1 입주가능	\$5,200 평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3.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로리가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팔아 달라고 연락용 4/3 세팅먼트 예정	RENT	마켓에 내 놓자마자 너무 좋은 세입자 계약 완료. 주인/세입자 모두 해피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Langley 권에서 제일 좋은 단지 복수 오피 중에서 경쟁 돌고 득템, 바이어 So Happy 4/9 세팅먼트 예정	RENT	주재원 (3년)
6501 Divine St, McLean, VA	셀러가 흡족할 만 조건으로 계약 완료, Seller So Happy 4/14 세팅먼트 예정	RENT	공실없이 28개월 장기렌트 완료
	8872 Ashgrove House Ln, Vienna, VA	RENT	주재원 (2 + 2년)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이곳에서

2025 Return

A

T X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s://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우리말 바꾸기

‘하는가운데’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나, -는’ 다음에도 사용한다.

이때 ‘가운데’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배경이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할 때 편리하다.

‘가운데’ 없이 문장을 나누어도 의미는 비슷하게 전달된다. “(모두)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습니다.”에서도 ‘바쁘신 가운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라는 상황은 압한다.

다만 ‘-나(는) 가운데’로 연결된 문장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선명하지는 않다.

어떤 형태가 더 좋고 나쁘고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다음 같은 문장들에서는 ‘-나(는) 가운데’가 필요하지 않거나 어색한 느낌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강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개혁도 빨리 해야 한다.” 이 문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 개혁도 빨리 해야 한다”여야 했다. 무리하게 ‘있는 가운데’를 넣어버렸다. 간결성은 떨어지고 의미는 모호해졌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오른쪽

“우울병도 종류가 많군요”



수잔 정  
소아정신과 전문의

“매사 흥미가 없고, 집중이 어려워요. 무슨 일에도 결정이 힘들어요.” 육체적,심리적, 인지 능력 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우울증을 인간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두 번째 질병으로 꼽을 정도다. 사실 정신질환(mental illness)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정신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도 편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춘기 또는 성인이 된 후 시작된 우울증은 대부분 3~6개월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재발이 적고, 재발이 돼도 증세가 심하지 않다.

흔히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을 혼동한다. ‘우울한 감정’은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느낌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정도가 아니다. 마음의 폐렴이나 암이 될 수도 있다.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는 기간, 시점, 또는 추정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과도적 기분 조절 장애’는 6세부터 18세 사이의 남아에게 많고, 과민 반응이 특징이다. ‘정신과 질병의 진단 및 통계 열람 5(DSM5)’가 나오기 전 필자도 종종 아동 조울증으로 잘못 진단했을 정도로 분노와 불안, 우울한 감정이 큰 질병이다.

‘생리 전 불쾌감 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는 여성이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우울, 절망감 등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생리가 끝날 때에는 증세가 호전되며, 거의 매달 이런 증상을 경험할 경우 해당된다.

‘약물이나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 증상’은

심혈관 치료제, 경구 피임약 등을 먹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 쿠싱씨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뇌졸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우울 장애’도 조울증처럼 심각한 우울병이다. 어린 시절 우울 장애가 있었던 여성 중에는 성인이 되면서 조울증으로 바뀌어 재발할 수 있는데, 이때 정서 안정제 없이 항우울제만 복용하면 더 우울해지거나, 자살 욕구가 높아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모든 항우울제에는 특별 경고가 붙어 있다.

‘주요 우울증’은 우울하거나 흥미 상실 기간이 최소 14일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수면 또는 식욕 변화(한 달간 체중의 5%가 늘거나 빠짐)를 느끼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여기저기 아프다. 또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초조, 무력감과 죄책감도 느낀다. 이 밖에 집중력과 결정력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더 심해지면 자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준비에 착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응급 상황이므로, 응급실로 보내거나 입원해야 한다)

‘조울증’은 자신감이 넘치며, 3시간의 수면만으로도 아무 지장이 없는 조증(Mania)이나 경조증(Hypomania)을 경험했고, 그 이전엔 심각

한 우울 증상을 겪었던 질병이다. 이 병은 환경적 영향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강해 반드시 가족력을 확인해야 한다.

많은 조울증 환자는 자신이 과거에 조증이나 경조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약 4~7일간 구름에 떠있듯 신났던 시기를 그저 ‘기분 좋았던 한때’라고 기억할 뿐이다. 그러나 조증이나 경조증 시기에 의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나이가 겪는 우울증은 어떤 우울 증상보다 심한 데다 지독한 불안감과 격렬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크다. 그래서 조울증이 의심된다면 가족이나 친구가 의사에게 가족력이나 과거 이력을 알려줘 ‘주요 우울증’으로 오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우울제만 처방받아 우울 증상이 악화하거나, 자살의 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주요 우울증’과 달리, 조울증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다. 우울증과 함께 생기는 불안과 분노가 주변인에게 향할 경우 공격성으로, 자신에게 향하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은 지난 25년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특히 75세 이상 시니어 자살률은 10만명당 99.3명으로 영국의 10.4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자살 행동자의 80%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자살률은 출신 국가의 자살률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자신도 희망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아침에

배내옷을 접으며



엄영아  
수필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야 한다고 배운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경력, 더 화려한 인맥,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수많은 물건까지. 그렇게 하나씩 더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쌓아올린 것들의 무게에 숨이 막힐 때가 있다.

요즘 나는 집 안을 정리하고 있다. 오래된 책, 몇 해째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여둔 물건들이다.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한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디다. 사실 내가 버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시간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집에 다녀간 큰딸이 내 마음을 알았는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지금 조금씩 정리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버리려면 힘들거든요. 지금 집을 더 넓고 편하게 쓰시는 게 좋잖아요.” 딸의 답답한 말은 서늘하면서도 명쾌했다. 우리가 애써 모아둔 것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리

될 운명이라면, 지금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뒷모습이 아닐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만발의 배내옷을 꺼냈다. 세월이 색은 바랬지만, 손바닥만 한 하얀 옷감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 작은 옷을 펼치는 순간, 낯선 타국에서 첫아이를 기다리던 젊은 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국의 친정어머니가 배편으로 보내주신 작은 상자, 백화점 ‘메이 컴퍼니(May Company)’에서 성별도 모른 채 하얀색

옷과 담요를 고르던 우리 부부의 설렘과 조심스러움. 그 모든 체온이 옷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밤마다 잠을 설쳐 가며 아이 곁을 지켰던 날들, 서둘러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의 시간, 그 시간을 차마 버리지 못해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물건을 붙잡는다고 시간이 붙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내옷을 곱게 접어 상자에 넣었다. 이것은 물건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아름답게 놓아주는 의식이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과거의 욕망과 미래의 불안을 털어내는 일이다. 오늘도 나는 서랍 하나를 조용히 정리한다. 털어낼수록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비워진 자리마다 고요한 바람이 드나든다.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단정하게, 그리고 나 자신과 더 오래 눈을 맞추며 살고 싶다.

<p>1. 천들리 하이 싱글 \$1,299,000</p> <p>Coming Soon</p> <p>방4, 화3.5, 차고2, 큰벽, 락키런 미들, 포틀라트리 초 (최고 학군)</p>	<p>4. 스틸링 터운 SOLD \$645,000</p> <p>2014년, 방3, 화2.5, 차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p>	<p>7. 애쉬번 뉴타운 55+ SOLD \$790,000</p> <p>방3, 화3.5, 차고2, Elevator</p>
<p>2. 현돈 \$590,000</p> <p>Coming Soon</p> <p>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p>	<p>5. 케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p> <p>케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하이 마켓 싱글 \$1,699,000</p> <p>SOLD / CASH</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룸,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p>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90,000</p> <p>Coming Soon</p> <p>방2, 화2, 풀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p>	<p>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p> <p>Sold</p> <p>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2. 메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p>	<p>9. 알디 싱글 SOLD \$869,000</p> <p>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곳칸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p>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매년대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매년대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 호르무즈 위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대계 세우자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가 0.4%포인트 하락한 1.7%로 수정되며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형 제조업에 의존하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차량 5부제 같은 단기 처방을 넘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근본 틀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지정학이 던진 이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듣는 긴급 토론회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함께 마련했다. 박소영 논설위원이 진행한 토론에는 이재승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과 정용현 전 아주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에너지 위기의 관점에서 이란 사태를 평가해달라.

이재승(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소위 '에너지의 태평성대'를 누려왔다. 2010년대 중반부터 공급증가로 시장이 가격을 주도하면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봉쇄'라는 블랙스완이 현실화됐다. 에너지 지정학은 이제 가격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용현(전 아주대 교수)=우리나라도 대비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진'급 위기를 완벽히 극복할 만큼의 대비는 비용 문제로 누구도 하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이번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지진이 왔다. 70년대 이후 반복된 위기와 이번 사태는 결이 다르다. 과거가 단순한 '물량 확보'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공급망 자체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김진수(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산업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송용 원유보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에너지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붕괴로 직결된다. 특히 천연가스 위기는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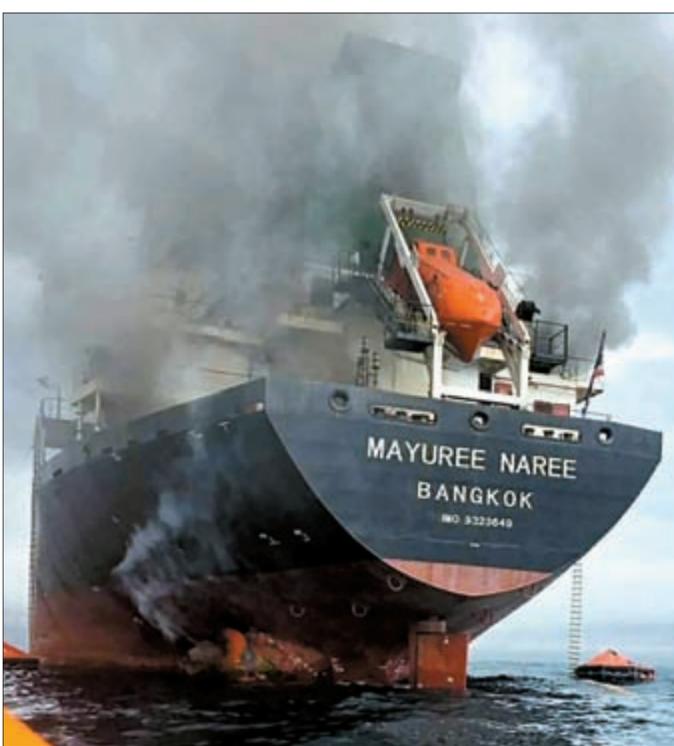
으로 전가돼 제조업 전체의 생산 원가를 압박한다.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등 초정밀 공정이 필수적인 우리 주력 산업은 단 한 순간의 전압 강하만으로도 셧다운 될 수가 있다. 가계의 불편을 넘어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 시설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까. 또 이번 사태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정=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더 절망적이다. 현재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전의 핵심 트레인 14개 중 2개가 폭격당하는 등 지상 설비 피해액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0억 달러에 달한다. 유전은 한번 닫으면 복구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특히 LNG 선박에 필수적인 열교환기 같은 핵심 부품은 조달에만 50개월 이상이 걸린다. 전쟁이 당장 끝나도 인프라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끝이 아니라 '초입'에서 있는 셈이다.

김=식량 위기로의 전이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료 원료인 요소(Urea)의 물량은 전 세계 물동량의 30%에 달한다. 에너지 수급 불안은 비료 가격 폭등을 불러오고, 이는 곧 북반구 파종 시기와 맞물려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밥상 물가와 직결된 생존의 위기인 셈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화'다. '에너지 합리화 기본계획' 같은 정책이 있지만, 대중의 관심은 낮다.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이번 사태의 단기적 수혜국은 유가 급등과 제재 완화로 외화를 벌어들인 러시아와 셰일 가스를 수출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다. 반면 한국, 일본은 압도적인 피해국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크기에 궁극적인 대체 공급자로 고려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금 위기는 위험 대비 안전성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이번 사태를 겪으며 가장 부러운



지난달 11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태국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가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일본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다. 일본의 외교관과 기업들이 중동 현지에서 쌓아온 인연이 매우 깊다. 일본 상사기업들은 LNG 가치사슬 전반에도 엄청난 수의 특허와 지분을 보유하고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 반면 우리는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 한국도 기업 단위에서 실질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에너지 생태계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일본 종합상사들의 정보 수집 능력은 웬만한 국가 정보기관을 능가한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에도 다국적 기업 셸(Shell)이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할 때, 일본 현장 전문가들은 리스크를 피하거나 기회를 잡는 민첩함을 보여줬다. 민간 경영인들이 수십 년간 한 분야를 파고들며 중동 왕실과 개인적 친분까지 쌓은 결과다. 3~4년마다 바뀌는 우리 공공기관장 체제로는 이런 '연속성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민간 역할을 전면 개방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이=과거 자원 개발 사업은 정치적 성과와 홍보에 매몰되어 '사진 찍기 좋은'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유가 급등기에 급하게 뛰어들었다가 좌절을 겪기도 했다. 에너지 판은 속된 말로 '범생이'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수십 년간 갈고닦은 '타짜'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달

려드는 곳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급망 가치사슬의 한 축을 장악하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

정=한·중·일 에너지 협력은 과거부터 시도됐으나 시장 구조가 달라 실적이 적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다르다. 두 나라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시장 구조가 비슷하다. 국가 간 거창한 합의가 어렵다면 기업 차원에서의 긴급 비축이나 공동 구매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SK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미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작게 시작해 빠르게 작동하는 프로젝트 단위 협력이 생존 모델이 될 것이다.

-에너지믹스 재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선 '깨끗한 에너지'보다 '공급없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석탄 발전'을 다시 봐야 한다. 동해안 신규 석탄 발전소가 동물이 20~30%에 불과한데, 송전망만 확보된다면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도 여전히 석탄을 줄이지 않고 있다. "맑은 하늘도 배고파보면 귀찮다"는 말처럼,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는 고효율 석탄 발전을 보험용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은 과거

공격수였다면 이제는 기저 전력을 담당하는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에너지원의 선약을 따지기보다 각 에너지원이 가진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감독의 안목이 필요하다. 석유 위기는 시차를 두고 오지만 전력 위기는 즉각적이다.

정=중동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사우디 유전은 생산단가가 배럴당 5달러 수준이지만 미국의 셰일은 50~60달러가 든다. 향후 20년, 즉 205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전략하에서 에너지 도입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중동의 중질유(Heavy Oil)는 아스팔트부터 정밀 화학제품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다. 반면에 미국의 셰일 오일은 경질유(Light Oil)라 용도가 다르다. 중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과는 에너지 안보 대화를 상설화해 외부적 교란요인을 최소화하는 외교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있을 유사한 사태에 대비, 정부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이=이제는 분산된 에너지 정책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컨트롤타워의 핵심 키워드는 '상설화'와 '전문화'다. 정치를 가급적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꾸준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나는 이를 '스마트(SMART)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 제안한다. 안정성(Stable), 다각적 외교(Multilateral), 첨단 기술력 지원(Advanced), 회복력(Resilience), 통합 거버넌스(Total)가 그 핵심이다.

정=정부는 기업을 간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전후 복구 사업은 우리 EPC(설계·조달·시공)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정유 공장 설비나 LNG선 제조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강점을 활용해 우리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명맥을 쥐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

김=가장 큰 리스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날뛰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야말로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는 분명 소중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단 없는 공급'과 '국민이 수용 가능한 가격'이라는 현실적 균형이 잡혀야 한다. 정치적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20~3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비전이 유지될 때 비로소 위기에 강한 체계를 가질 수 있다.

박소영 논설위원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시설

### 26조 '전쟁 추경'... 사업성 정밀히 따져 적기·적소 투입해야

정부가 어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으로, 중동전쟁의 충격 완화를 위한 것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가구(3256만 명)에 지역화폐 등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4조2000억원)을 포함한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이 촉발한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민생을 감안하면 여당의 '전쟁 추경' 속도전도 일리는 있다. 추경은 적기·적소에 이뤄져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속도에만 방점을 찍은 졸속 추진은 곤란하다. 우선 26조원은 당초 거론됐던 추경 규모보다 5조~10조원이나 많다. 현금성 지급 대상도 넓어졌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인 하위 70%는 국민 10명 중 7명으로 사실상 '보편적 현금 살포'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위기 상황을 틈타 쓸쩍 밀어넣은 선심성 사업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대표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규모 추경의 부작용도 따져야 한다. 정부는 국제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11.8%나 늘어나게 된다. 초과 세수를 쟁여두거나 적자 국채 상환에 쓰는 대신 돈 풀기에 동원하면서 정부의 대응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금성 지원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며 금리 상승을 자극할 여지도 다분하다. 이미 국제 금리가 오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돌파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쟁 추경'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사장이 희식비만 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말처럼, 물가오름세를 잡지 못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 효과는 퇴색한다. 전례 없는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인 만큼 여야는 추경을 정쟁이나 선심의 도구로 삼기보다 꼼꼼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위기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오히려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추경의 효과를 갉아먹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발언과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 금융위기만큼 치솟은 환율... 너무 잠잠한 외환당국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달러당 1500원 중반까지 치솟았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증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집계됐다. 고(高)유가에도 고(高)환율까지 겹치면 물가 부담은 증폭되고 민생의 주름은 더 깊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환율이 치솟는 건 중동 사태 여파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내다팔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달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달러인덱스)는 2.9%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6.27%나 떨어졌다. 일본 엔(-2.50%), 대만 달러(-2.53%) 등 주요 아시아 통화에 비해서도 절하 폭이 지나치게 크다.

정작 우리 외환당국의 대응엔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눈에 띄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재무성 등이 연일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 다른 축인 한국은행

에선 총재 교체라는 과도기를 맞아 메시지가 정교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환율 관련 질문에 "현재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기론'을 불식하는 데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지만 시장 일각에선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세를 감안하면 수출 현상에 대한 경고와 대응 의지를 함께 밝히는 게 좋았을 것이다.

당국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중동전쟁이 얼마나 지속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을 막으려 개입했다가 성과 없이 외환보유액만 축낼 수 있다. 하지만 원화가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 시장 흔들림을 더 키울 수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국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 커피 석 잔에 검찰까지 갔다

###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이게 맞아?"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을 새삼 일깨워준 뉴스는 알바를 하던 A카페에서 주인 허락 없이 커피 석 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는 20살 알바생 얘기였다. 재수 시절인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일하던 B카페를 관두겠다고 하자 그곳 주인은 고객 쿠폰 무단 적립 등을 문제 삼아 5개월 동안 지급한 알바비의 두 배 가까운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주인 소개로 가끔 일하던 A카페의 주인은 로펌까지 동원해 1만2800원 상당의 커피 석 잔을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알바생을 고소했다. 또 경찰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 청주지검의 보완수사 지시로 추가 수사 중이다.

두 점주와 알바생 간 협박·무고 고소가 오가는 등 복잡한 내막을 전부 알 수는 없어 선볼리 누리님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다.

일부 커뮤니티에 도는 얘기처럼 알바생이 일부 지역에 만연하다는 점주의 뻥뻥기 수법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커피를 공짜로 가져가는 잘못을 정말 했을 수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런 사소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도 어린 알바생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으바지르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다. 여당 폭주로 꼬여버린 사법체계 탓에 지금 검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백엔드보도 고작 커피 석 잔이 검경 자원을 투입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 있는 매우 위험하거나 대단한 범죄는 아니라는 말이다.

혹자는 커피 공방은 지극히 이례적인 해프닝이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흑독한 현실을 견디고 있는 우리 청년들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쓰인다.

어제 이런 뉴스도 있었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창업 관련 설문 결과를 보니 열에 아홉(87.8%)은 창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창업하겠다는 학생은 열에 하나(10.9%)에 불과했다. (한경협조사) 창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리스크'였다. 평균적으로 창업 후 5년 내 3분의 2가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보다 자산 적은 청년 창업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실패자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안전망 없이 실패 리스크를 개인이 떠안는 구조가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이공계 인재들조차 창업에 나서길 두려워하도록 내뿜는다. 실패하면 인생이 한 번에 부러질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한 게임판 같아서, 창업을 망설인다고 도전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감히 손가락질하기 어렵다.

문제는 창업을 피한다고 정말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500대 기업의 50대 직원 수가 20대 추월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가 쪼그라들었다. 경제 위기

### 5개월 알바 끝 합의금 550만원 실패 두려워 공대생도 창업 주저 취업도 창업도 막힌 청년 현실

에 인공지능(AI)발 고용감소까지 겹쳐 20대 이하 일자리가 1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안정된 일자리로 들어가는 입구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창업이라는 우회로마저 외면하고, 취약한 일자리에선 점점 더 열악한 노동환경을 맞닥뜨린다면 지금 청년은 대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어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글로벌 경제 위기 때와 맞먹는 1530.1원에 마감했다. 고환율·고유가로 세대 불문 고통스럽다.

하지만 자산 없이 오직 알바비나 낮은 월급으로 겨우겨우 월세·학자금에 막아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이 더 가혹하다. 알바를 하던 카페에서 커피 몇 잔 마셨다고 기소당하고, 취업은 막혔는데 창업 실패 공포에 떨어야 하고, 환율·물가는 폭주하는데 내 월급(알바비)만 그대로. 말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권력다툼에 만 눈멀어 둔 뿌리기 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이게 맞아?"

###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부처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NHK WORLD, NHK WORLD TV, NHK WORLD RADIO 1, NHK WORLD RADIO 2, NHK WORLD RADIO 3, NHK WORLD RADIO 4, NHK WORLD RADIO 5, NHK WORLD RADIO 6, NHK WORLD RADIO 7, NHK WORLD RADIO 8, NHK WORLD RADIO 9, NHK WORLD RADIO 10, NHK WORLD RADIO 11, NHK WORLD RADIO 12, NHK WORLD RADIO 13, NHK WORLD RADIO 14, NHK WORLD RADIO 15, NHK WORLD RADIO 16, NHK WORLD RADIO 17, NHK WORLD RADIO 18, NHK WORLD RADIO 19, NHK WORLD RADIO 20, NHK WORLD RADIO 21, NHK WORLD RADIO 22, NHK WORLD RADIO 23, NHK WORLD RADIO 24, NHK WORLD RADIO 25, NHK WORLD RADIO 26, NHK WORLD RADIO 27, NHK WORLD RADIO 28, NHK WORLD RADIO 29, NHK WORLD RADIO 30, NHK WORLD RADIO 31, NHK WORLD RADIO 32, NHK WORLD RADIO 33, NHK WORLD RADIO 34, NHK WORLD RADIO 35, NHK WORLD RADIO 36, NHK WORLD RADIO 37, NHK WORLD RADIO 38, NHK WORLD RADIO 39, NHK WORLD RADIO 40, NHK WORLD RADIO 41, NHK WORLD RADIO 42, NHK WORLD RADIO 43, NHK WORLD RADIO 44, NHK WORLD RADIO 45, NHK WORLD RADIO 46, NHK WORLD RADIO 47, NHK WORLD RADIO 48, NHK WORLD RADIO 49, NHK WORLD RADIO 50, NHK WORLD RADIO 51, NHK WORLD RADIO 52, NHK WORLD RADIO 53, NHK WORLD RADIO 54, NHK WORLD RADIO 55, NHK WORLD RADIO 56, NHK WORLD RADIO 57, NHK WORLD RADIO 58, NHK WORLD RADIO 59, NHK WORLD RADIO 60, NHK WORLD RADIO 61, NHK WORLD RADIO 62, NHK WORLD RADIO 63, NHK WORLD RADIO 64, NHK WORLD RADIO 65, NHK WORLD RADIO 66, NHK WORLD RADIO 67, NHK WORLD RADIO 68, NHK WORLD RADIO 69, NHK WORLD RADIO 70, NHK WORLD RADIO 71, NHK WORLD RADIO 72, NHK WORLD RADIO 73, NHK WORLD RADIO 74, NHK WORLD RADIO 75, NHK WORLD RADIO 76, NHK WORLD RADIO 77, NHK WORLD RADIO 78, NHK WORLD RADIO 79, NHK WORLD RADIO 80, NHK WORLD RADIO 81, NHK WORLD RADIO 82, NHK WORLD RADIO 83, NHK WORLD RADIO 84, NHK WORLD RADIO 85, NHK WORLD RADIO 86, NHK WORLD RADIO 87, NHK WORLD RADIO 88, NHK WORLD RADIO 89, NHK WORLD RADIO 90, NHK WORLD RADIO 91, NHK WORLD RADIO 92, NHK WORLD RADIO 93, NHK WORLD RADIO 94, NHK WORLD RADIO 95, NHK WORLD RADIO 96, NHK WORLD RADIO 97, NHK WORLD RADIO 98, NHK WORLD RADIO 99, NHK WORLD RADIO 100, NHK WORLD RADIO 101, NHK WORLD RADIO 102, NHK WORLD RADIO 103, NHK WORLD RADIO 104, NHK WORLD RADIO 105, NHK WORLD RADIO 106, NHK WORLD RADIO 107, NHK WORLD RADIO 108, NHK WORLD RADIO 109, NHK WORLD RADIO 110, NHK WORLD RADIO 111, NHK WORLD RADIO 112, NHK WORLD RADIO 113, NHK WORLD RADIO 114, NHK WORLD RADIO 115, NHK WORLD RADIO 116, NHK WORLD RADIO 117, NHK WORLD RADIO 118, NHK WORLD RADIO 119, NHK WORLD RADIO 120, NHK WORLD RADIO 121, NHK WORLD RADIO 122, NHK WORLD RADIO 123, NHK WORLD RADIO 124, NHK WORLD RADIO 125, NHK WORLD RADIO 126, NHK WORLD RADIO 127, NHK WORLD RADIO 128, NHK WORLD RADIO 129, NHK WORLD RADIO 130, NHK WORLD RADIO 131, NHK WORLD RADIO 132, NHK WORLD RADIO 133, NHK WORLD RADIO 134, NHK WORLD RADIO 135, NHK WORLD RADIO 136, NHK WORLD RADIO 137, NHK WORLD RADIO 138, NHK WORLD RADIO 139, NHK WORLD RADIO 140, NHK WORLD RADIO 141, NHK WORLD RADIO 142, NHK WORLD RADIO 143, NHK WORLD RADIO 144, NHK WORLD RADIO 145, NHK WORLD RADIO 146, NHK WORLD RADIO 147, NHK WORLD RADIO 148, NHK WORLD RADIO 149, NHK WORLD RADIO 150, NHK WORLD RADIO 151, NHK WORLD RADIO 152, NHK WORLD RADIO 153, NHK WORLD RADIO 154, NHK WORLD RADIO 155, NHK WORLD RADIO 156, NHK WORLD RADIO 157, NHK WORLD RADIO 158, NHK WORLD RADIO 159, NHK WORLD RADIO 160, NHK WORLD RADIO 161, NHK WORLD RADIO 162, NHK WORLD RADIO 163, NHK WORLD RADIO 164, NHK WORLD RADIO 165, NHK WORLD RADIO 166, NHK WORLD RADIO 167, NHK WORLD RADIO 168, NHK WORLD RADIO 169, NHK WORLD RADIO 170, NHK WORLD RADIO 171, NHK WORLD RADIO 172, NHK WORLD RADIO 173, NHK WORLD RADIO 174, NHK WORLD RADIO 175, NHK WORLD RADIO 176, NHK WORLD RADIO 177, NHK WORLD RADIO 178, NHK WORLD RADIO 179, NHK WORLD RADIO 180, NHK WORLD RADIO 181, NHK WORLD RADIO 182, NHK WORLD RADIO 183, NHK WORLD RADIO 184, NHK WORLD RADIO 185, NHK WORLD RADIO 186, NHK WORLD RADIO 187, NHK WORLD RADIO 188, NHK WORLD RADIO 189, NHK WORLD RADIO 190, NHK WORLD RADIO 191, NHK WORLD RADIO 192, NHK WORLD RADIO 193, NHK WORLD RADIO 194, NHK WORLD RADIO 195, NHK WORLD RADIO 196, NHK WORLD RADIO 197, NHK WORLD RADIO 198, NHK WORLD RADIO 199, NHK WORLD RADIO 200, NHK WORLD RADIO 201, NHK WORLD RADIO 202, NHK WORLD RADIO 203, NHK WORLD RADIO 204, NHK WORLD RADIO 205, NHK WORLD RADIO 206, NHK WORLD RADIO 207, NHK WORLD RADIO 208, NHK WORLD RADIO 209, NHK WORLD RADIO 210, NHK WORLD RADIO 211, NHK WORLD RADIO 212, NHK WORLD RADIO 213, NHK WORLD RADIO 214, NHK WORLD RADIO 215, NHK WORLD RADIO 216, NHK WORLD RADIO 217, NHK WORLD RADIO 218, NHK WORLD RADIO 219, NHK WORLD RADIO 220, NHK WORLD RADIO 221, NHK WORLD RADIO 222, NHK WORLD RADIO 223, NHK WORLD RADIO 224, NHK WORLD RADIO 225, NHK WORLD RADIO 226, NHK WORLD RADIO 227, NHK WORLD RADIO 228, NHK WORLD RADIO 229, NHK WORLD RADIO 230, NHK WORLD RADIO 231, NHK WORLD RADIO 232, NHK WORLD RADIO 233, NHK WORLD RADIO 234, NHK WORLD RADIO 235, NHK WORLD RADIO 236, NHK WORLD RADIO 237, NHK WORLD RADIO 238, NHK WORLD RADIO 239, NHK WORLD RADIO 240, NHK WORLD RADIO 241, NHK WORLD RADIO 242, NHK WORLD RADIO 243, NHK WORLD RADIO 244, NHK WORLD RADIO 245, NHK WORLD RADIO 246, NHK WORLD RADIO 247, NHK WORLD RADIO 248, NHK WORLD RADIO 249, NHK WORLD RADIO 250, NHK WORLD RADIO 251, NHK WORLD RADIO 252, NHK WORLD RADIO 253, NHK WORLD RADIO 254, NHK WORLD RADIO 255, NHK WORLD RADIO 256, NHK WORLD RADIO 257, NHK WORLD RADIO 258, NHK WORLD RADIO 259, NHK WORLD RADIO 260, NHK WORLD RADIO 261, NHK WORLD RADIO 262, NHK WORLD RADIO 263, NHK WORLD RADIO 264, NHK WORLD RADIO 265, NHK WORLD RADIO 266, NHK WORLD RADIO 267, NHK WORLD RADIO 268, NHK WORLD RADIO 269, NHK WORLD RADIO 270, NHK WORLD RADIO 271, NHK WORLD RADIO 272, NHK WORLD RADIO 273, NHK WORLD RADIO 274, NHK WORLD RADIO 275, NHK WORLD RADIO 276, NHK WORLD RADIO 277, NHK WORLD RADIO 278, NHK WORLD RADIO 279, NHK WORLD RADIO 280, NHK WORLD RADIO 281, NHK WORLD RADIO 282, NHK WORLD RADIO 283, NHK WORLD RADIO 284, NHK WORLD RADIO 285, NHK WORLD RADIO 286, NHK WORLD RADIO 287, NHK WORLD RADIO 288, NHK WORLD RADIO 289, NHK WORLD RADIO 290, NHK WORLD RADIO 291, NHK WORLD RADIO 292, NHK WORLD RADIO 293, NHK WORLD RADIO 294, NHK WORLD RADIO 295, NHK WORLD RADIO 296, NHK WORLD RADIO 297, NHK WORLD RADIO 298, NHK WORLD RADIO 299, NHK WORLD RADIO 300, NHK WORLD RADIO 301, NHK WORLD RADIO 302, NHK WORLD RADIO 303, NHK WORLD RADIO 304, NHK WORLD RADIO 305, NHK WORLD RADIO 306, NHK WORLD RADIO 307, NHK WORLD RADIO 308, NHK WORLD RADIO 309, NHK WORLD RADIO 310, NHK WORLD RADIO 311, NHK WORLD RADIO 312, NHK WORLD RADIO 313, NHK WORLD RADIO 314, NHK WORLD RADIO 315, NHK WORLD RADIO 316, NHK WORLD RADIO 317, NHK WORLD RADIO 318, NHK WORLD RADIO 319, NHK WORLD RADIO 320, NHK WORLD RADIO 321, NHK WORLD RADIO 322, NHK WORLD RADIO 323, NHK WORLD RADIO 324, NHK WORLD RADIO 325, NHK WORLD RADIO 326, NHK WORLD RADIO 327, NHK WORLD RADIO 328, NHK WORLD RADIO 329, NHK WORLD RADIO 330, NHK WORLD RADIO 331, NHK WORLD RADIO 332, NHK WORLD RADIO 333, NHK WORLD RADIO 334, NHK WORLD RADIO 335, NHK WORLD RADIO 336, NHK WORLD RADIO 337, NHK WORLD RADIO 338, NHK WORLD RADIO 339, NHK WORLD RADIO 340, NHK WORLD RADIO 341, NHK WORLD RADIO 342, NHK WORLD RADIO 343, NHK WORLD RADIO 344, NHK WORLD RADIO 345, NHK WORLD RADIO 346, NHK WORLD RADIO 347, NHK WORLD RADIO 348, NHK WORLD RADIO 349, NHK WORLD RADIO 350, NHK WORLD RADIO 351, NHK WORLD RADIO 352, NHK WORLD RADIO 353, NHK WORLD RADIO 354, NHK WORLD RADIO 355, NHK WORLD RADIO 356, NHK WORLD RADIO 357, NHK WORLD RADIO 358, NHK WORLD RADIO 359, NHK WORLD RADIO 360, NHK WORLD RADIO 361, NHK WORLD RADIO 362, NHK WORLD RADIO 363, NHK WORLD RADIO 364, NHK WORLD RADIO 365, NHK WORLD RADIO 366, NHK WORLD RADIO 367, NHK WORLD RADIO 368, NHK WORLD RADIO 369, NHK WORLD RADIO 370, NHK WORLD RADIO 371, NHK WORLD RADIO 372, NHK WORLD RADIO 373, NHK WORLD RADIO 374, NHK WORLD RADIO 375, NHK WORLD RADIO 376, NHK WORLD RADIO 377, NHK WORLD RADIO 378, NHK WORLD RADIO 379, NHK WORLD RADIO 380, NHK WORLD RADIO 381, NHK WORLD RADIO 382, NHK WORLD RADIO 383, NHK WORLD RADIO 384, NHK WORLD RADIO 385, NHK WORLD RADIO 386, NHK WORLD RADIO 387, NHK WORLD RADIO 388, NHK WORLD RADIO 389, NHK WORLD RADIO 390, NHK WORLD RADIO 391, NHK WORLD RADIO 392, NHK WORLD RADIO 393, NHK WORLD RADIO 394, NHK WORLD RADIO 395, NHK WORLD RADIO 396, NHK WORLD RADIO 397, NHK WORLD RADIO 398, NHK WORLD RADIO 399, NHK WORLD RADIO 400, NHK WORLD RADIO 401, NHK WORLD RADIO 402, NHK WORLD RADIO 403, NHK WORLD RADIO 404, NHK WORLD RADIO 405, NHK WORLD RADIO 406, NHK WORLD RADIO 407, NHK WORLD RADIO 408, NHK WORLD RADIO 409, NHK WORLD RADIO 410, NHK WORLD RADIO 411, NHK WORLD RADIO 412, NHK WORLD RADIO 413, NHK WORLD RADIO 414, NHK WORLD RADIO 415, NHK WORLD RADIO 416, NHK WORLD RADIO 417, NHK WORLD RADIO 418, NHK WORLD RADIO 419, NHK WORLD RADIO 420, NHK WORLD RADIO 421, NHK WORLD RADIO 422, NHK WORLD RADIO 423, NHK WORLD RADIO 424, NHK WORLD RADIO 425, NHK WORLD RADIO 426, NHK WORLD RADIO 427, NHK WORLD RADIO 428, NHK WORLD RADIO 429, NHK WORLD RADIO 430, NHK WORLD RADIO 431, NHK WORLD RADIO 432, NHK WORLD RADIO 433, NHK WORLD RADIO 434, NHK WORLD RADIO 435, NHK WORLD RADIO 436, NHK WORLD RADIO 437, NHK WORLD RADIO 438, NHK WORLD RADIO 439, NHK WORLD RADIO 440, NHK WORLD RADIO 441, NHK WORLD RADIO 442, NHK WORLD RADIO 443, NHK WORLD RADIO 444, NHK WORLD RADIO 445, NHK WORLD RADIO 446, NHK WORLD RADIO 447, NHK WORLD RADIO 448, NHK WORLD RADIO 449, NHK WORLD RADIO 450, NHK WORLD RADIO 451, NHK WORLD RADIO 452, NHK WORLD RADIO 453, NHK WORLD RADIO 454, NHK WORLD RADIO 455, NHK WORLD RADIO 456, NHK WORLD RADIO 457, NHK WORLD RADIO 458, NHK WORLD RADIO 459, NHK WORLD RADIO 460, NHK WORLD RADIO 461, NHK WORLD RADIO 462, NHK WORLD RADIO 463, NHK WORLD RADIO 464, NHK WORLD RADIO 465, NHK WORLD RADIO 466, NHK WORLD RADIO 467, NHK WORLD RADIO 468, NHK WORLD RADIO 469, NHK WORLD RADIO 470, NHK WORLD RADIO 471, NHK WORLD RADIO 472, NHK WORLD RADIO 473, NHK WORLD RADIO 474, NHK WORLD RADIO 475, NHK WORLD RADIO 476, NHK WORLD RADIO 477, NHK WORLD RADIO 478, NHK WORLD RADIO 479, NHK WORLD RADIO 480, NHK WORLD RADIO 481, NHK WORLD RADIO 482, NHK WORLD RADIO 483, NHK WORLD RADIO 484, NHK WORLD RADIO 485, NHK WORLD RADIO 486, NHK WORLD RADIO 487, NHK WORLD RADIO 488, NHK WORLD RADIO 489, NHK WORLD RADIO 490, NHK WORLD RADIO 491, NHK WORLD RADIO 492, NHK WORLD RADIO 493, NHK WORLD RADIO 494, NHK WORLD RADIO 495, NHK WORLD RADIO 496, NHK WORLD RADIO 497, NHK WORLD RADIO 498, NHK WORLD RADIO 499, NHK WORLD RADIO 500, NHK WORLD RADIO 501, NHK WORLD RADIO 502, NHK WORLD RADIO 503, NHK WORLD RADIO 504, NHK WORLD RADIO 505, NHK WORLD RADIO 506, NHK WORLD RADIO 507, NHK WORLD RADIO 508, NHK WORLD RADIO 509, NHK WORLD RADIO 510, NHK WORLD RADIO 511, NHK WORLD RADIO 512, NHK WORLD RADIO 513, NHK WORLD RADIO 514, NHK WORLD RADIO 515, NHK WORLD RADIO 516, NHK WORLD RADIO 517, NHK WORLD RADIO 518, NHK WORLD RADIO 519, NHK WORLD RADIO 520, NHK WORLD RADIO 521, NHK WORLD RADIO 522, NHK WORLD RADIO 523, NHK WORLD RADIO 524, NHK WORLD RADIO 525, NHK WORLD RADIO 526, NHK WORLD RADIO 527, NHK WORLD RADIO 528, NHK WORLD RADIO 529, NHK WORLD RADIO 530, NHK WORLD RADIO 531, NHK WORLD RADIO 532, NHK WORLD RADIO 533, NHK WORLD RADIO 534, NHK WORLD RADIO 535, NHK WORLD RADIO 536, NHK WORLD RADIO 537, NHK WORLD RADIO 538, NHK WORLD RADIO 539, NHK WORLD RADIO 540, NHK WORLD RADIO 541, NHK WORLD RADIO 542, NHK WORLD RADIO 543, NHK WORLD RADIO 544, NHK WORLD RADIO 545, NHK WORLD RADIO 546, NHK WORLD RADIO 547, NHK WORLD RADIO 548, NHK WORLD RADIO 549, NHK WORLD RADIO 550, NHK WORLD RADIO 551, NHK WORLD RADIO 552, NHK WORLD RADIO 553, NHK WORLD RADIO 554, NHK WORLD RADIO 555, NHK WORLD RADIO 556, NHK WORLD RADIO 557, NHK WORLD RADIO 558, NHK WORLD RADIO 559, NHK WORLD RADIO 560, NHK WORLD RADIO 561, NHK WORLD RADIO 562, NHK WORLD RADIO 563, NHK WORLD RADIO 564, NHK WORLD RADIO 565, NHK WORLD RADIO 566, NHK WORLD RADIO 567, NHK WORLD RADIO 568, NHK WORLD RADIO 569, NHK WORLD RADIO 570, NHK WORLD RADIO 571, NHK WORLD RADIO 572, NHK WORLD RADIO 573, NHK WORLD RADIO 574, NHK WORLD RADIO 575, NHK WORLD RADIO 576, NHK WORLD RADIO 577, NHK WORLD RADIO 578, NHK WORLD RADIO 579, NHK WORLD RADIO 580, NHK WORLD RADIO 581, NHK WORLD RADIO 582, NHK WORLD RADIO 583, NHK WORLD RADIO 584, NHK WORLD RADIO 585, NHK WORLD RADIO 586, NHK WORLD RADIO 587, NHK WORLD RADIO 588, NHK WORLD RADIO 589, NHK WORLD RADIO 590, NHK WORLD RADIO 591, NHK WORLD RADIO 592, NHK WORLD RADIO 593, NHK WORLD RADIO 594, NHK WORLD RADIO 595, NHK WORLD RADIO 596, NHK WORLD RADIO 597, NHK WORLD RADIO 598, NHK WORLD RADIO 599, NHK WORLD RADIO 600, NHK WORLD RADIO 601, NHK WORLD RADIO 602, NHK WORLD RADIO 603, NHK WORLD RADIO 604, NHK WORLD RADIO 605, NHK WORLD RADIO 606, NHK WORLD RADIO 607, NHK WORLD RADIO 608, NHK WORLD RADIO 609, NHK WORLD RADIO 610, NHK WORLD RADIO 611, NHK WORLD RADIO 612, NHK WORLD RADIO 613, NHK WORLD RADIO 614, NHK WORLD RADIO 615, NHK WORLD RADIO 616, NHK WORLD RADIO 617, NHK WORLD RADIO 618, NHK WORLD RADIO 619, NHK WORLD RADIO 620, NHK WORLD RADIO 621, NHK WORLD RADIO 622, NHK WORLD RADIO 623, NHK WORLD RADIO 624, NHK WORLD RADIO 625, NHK WORLD RADIO 626, NHK WORLD RADIO 627, NHK WORLD RADIO 628, NHK WORLD RADIO 629, NHK WORLD RADIO 630, NHK WORLD RADIO 631, NHK WORLD RADIO 632, NHK WORLD RADIO 633, NHK WORLD RADIO 634, NHK WORLD RADIO 635, NHK WORLD RADIO 636, NHK WORLD RADIO 637, NHK WORLD RADIO 638, NHK WORLD RADIO 639, NHK WORLD RADIO 640, NHK WORLD RADIO 641, NHK WORLD RADIO 642, NHK WORLD RADIO 643, NHK WORLD RADIO 644, NHK WORLD RADIO 645, NHK WORLD RADIO 646, NHK WORLD RADIO 647, NHK WORLD RADIO 648, NHK WORLD RADIO 649, NHK WORLD RADIO 650, NHK WORLD RADIO 651, NHK WORLD RADIO 652, NHK WORLD RADIO 653, NHK WORLD RADIO 654, NHK WORLD RADIO 655, NHK WORLD RADIO 656, NHK WORLD RADIO 657, NHK WORLD RADIO 658, NHK WORLD RADIO 659, NHK WORLD RADIO 660, NHK WORLD RADIO 661, NHK WORLD RADIO 662, NHK WORLD RADIO 663, NHK WORLD RADIO 664, NHK WORLD RADIO 665, NHK WORLD RADIO 666, NHK WORLD RADIO 667, NHK WORLD RADIO 668, NHK WORLD RADIO 669, NHK WORLD RADIO 670, NHK WORLD RADIO 671, NHK WORLD RADIO 672, NHK WORLD RADIO 673, NHK WORLD RADIO 674, NHK WORLD RADIO 675, NHK WORLD RADIO 676, NHK WORLD RADIO 677, NHK WORLD RADIO 678, NHK WORLD RADIO 679, NHK WORLD RADIO 680, NHK WORLD RADIO 681, NHK WORLD RADIO 682, NHK WORLD RADIO 683, NHK WORLD RADIO 684, NHK WORLD RADIO 685, NHK WORLD RADIO 686, NHK WORLD RADIO 687, NHK WORLD RADIO 688, NHK WORLD RADIO 689, NHK WORLD RADIO 690, NHK WORLD RADIO 691, NHK WORLD RADIO 692, NHK WORLD RADIO 693, NHK WORLD RADIO 694, NHK WORLD RADIO 695, NHK WORLD RADIO 696, NHK WORLD RADIO 697, NHK WORLD RADIO 698, NHK WORLD RADIO 699, NHK WORLD RADIO 700, NHK WORLD RADIO 701, NHK WORLD RADIO 702, NHK WORLD RADIO 703, NHK WORLD RADIO 704, NHK WORLD RADIO 705, NHK WORLD RADIO 706, NHK WORLD RADIO 707, NHK WORLD RADIO 708, NHK WORLD RADIO 709, NHK WORLD RADIO 710, NHK WORLD RADIO 711, NHK WORLD RADIO 712, NHK WORLD RADIO 713, NHK WORLD RADIO 714, NHK WORLD RADIO 715, NHK WORLD RADIO 716, NHK WORLD RADIO 717, NHK WORLD RADIO 718, NHK WORLD RADIO 719, NHK WORLD RADIO 720, NHK WORLD RADIO 721, NHK WORLD RADIO 722, NHK WORLD RADIO 723, NHK WORLD RADIO 724, NHK WORLD RADIO 725, NHK WORLD RADIO 726, NHK WORLD RADIO 727, NHK WORLD RADIO 728, NHK WORLD RADIO 729, NHK WORLD RADIO 730, NHK WORLD RADIO 731, NHK WORLD RADIO 732, NHK WORLD RADIO 733, NHK WORLD RADIO 734, NHK WORLD RADIO 735, NHK WORLD RADIO 736, NHK WORLD RADIO 737, NHK WORLD RADIO 738, NHK WORLD RADIO 739, NHK WORLD RADIO 740, NHK WORLD RADIO 741, NHK WORLD RADIO 742, NHK WORLD RADIO 743, NHK WORLD RADIO 744, NHK WORLD RADIO 745, NHK WORLD RADIO 746, NHK WORLD RADIO 747, NHK WORLD RADIO 748, NHK WORLD RADIO 749, NHK WORLD RADIO 750, NHK WORLD RADIO 751, NHK WORLD RADIO 752, NHK WORLD RADIO 753, NHK WORLD RADIO 754, NHK WORLD RADIO 755, NHK WORLD RADIO 756, NHK WORLD RADIO 757, NHK WORLD RADIO 758, NHK WORLD RADIO 759, NHK WORLD RADIO 760, NHK WORLD RADIO 761, NHK WORLD RADIO 762, NHK WORLD RADIO 763, NHK WORLD RADIO 764, NHK WORLD RADIO 765, NHK WORLD RADIO 766, NHK WORLD RADIO 767, NHK WORLD RADIO 768, NHK WORLD RADIO 769, NHK WORLD RADIO 770, NHK WORLD RADIO 771, NHK WORLD RADIO 772, NHK WORLD RADIO 773, NHK WORLD RADIO 774, NHK WORLD RADIO 775, NHK WORLD RADIO 776, NHK WORLD RADIO 777, NHK WORLD RADIO 778, NHK WORLD RADIO 779, NHK WORLD RADIO 780, NHK WORLD RADIO 781, NHK WORLD RADIO 782, NHK WORLD RADIO 783, NHK WORLD RADIO 784, NHK WORLD RADIO 785, NHK WORLD RADIO 786, NHK WORLD RADIO 787, NHK WORLD RADIO 788, NHK WORLD RADIO 789, NHK WORLD RADIO 790, NHK WORLD RADIO 791, NHK WORLD RADIO 792, NHK WORLD RADIO 793, NHK WORLD RADIO 794, NHK WORLD RADIO 795, NHK WORLD RADIO 796, NHK WORLD RADIO 797, NHK WORLD RADIO 798, NHK WORLD RADIO 799, NHK WORLD RADIO 800, NHK WORLD RADIO 801, NHK WORLD RADIO 802, NHK WORLD RADIO 803, NHK WORLD RADIO 804, NHK WORLD RADIO 805, NHK WORLD RADIO 806, NHK WORLD RADIO 807, NHK WORLD RADIO 808, NHK WORLD RADIO 809, NHK WORLD RADIO 810, NHK WORLD RADIO 811, NHK WORLD RADIO 812, NHK WORLD RADIO 813, NHK WORLD RADIO 814, NHK WORLD RADIO 815, NHK WORLD RADIO 816, NHK WORLD RADIO 817, NHK WORLD RADIO 818, NHK WORLD RADIO 819, NHK WORLD RADIO 820, NHK WORLD RADIO 821, NHK WORLD RADIO 822, NHK WORLD RADIO 823, NHK WORLD RADIO 824, NHK WORLD RADIO 825, NHK WORLD RADIO 826, NHK WORLD RADIO 827, NHK WORLD RADIO 828, NHK WORLD RADIO 829, NHK WORLD RADIO 830, NHK WORLD RADIO 831, NHK WORLD RADIO 832, NHK WORLD RADIO 833, NHK WORLD RADIO 834, NHK WORLD RADIO 835, NHK WORLD RADIO 836, NHK WORLD RADIO 837, NHK WORLD RADIO 838, NHK WORLD RADIO 839, NHK WORLD RADIO 840, NHK WORLD RADIO 841, NHK WORLD RADIO 842, NHK WORLD RADIO 843, NHK WORLD RADIO 844, NHK WORLD RADIO 845, NHK WORLD RADIO 846, NHK WORLD RADIO 847, NHK WORLD RADIO 848, NHK WORLD RADIO 849, NHK WORLD RADIO 850, NHK WORLD RADIO 851, NHK WORLD RADIO 852, NHK WORLD RADIO 853, NHK WORLD RADIO 854, NHK WORLD RADIO 855, NHK WORLD RADIO 856, NHK WORLD RADIO 857, NHK WORLD RADIO 858, NHK WORLD RADIO 859, NHK WORLD RADIO 860, NHK WORLD RADIO 861, NHK WORLD RADIO 862, NHK WORLD RADIO 863, NHK WORLD RADIO 864, NHK WORLD RADIO 865, NHK WORLD RADIO 866, NHK WORLD RADIO 867, NHK WORLD RADIO 868, NHK WORLD RADIO 869, NHK WORLD RADIO 870, NHK WORLD RADIO 871, NHK WORLD RADIO 872, NHK WORLD RADIO 873, NHK WORLD RADIO 874, NHK WORLD RADIO 875, NHK WORLD RADIO 876, NHK WORLD RADIO 877, NHK WORLD RADIO 878, NHK WORLD RADIO 879, NHK WORLD RADIO 880, NHK WORLD RADIO 881, NHK WORLD RADIO 882, NHK WORLD RADIO 883, NHK WORLD RADIO 884, NHK WORLD RADIO 885, NHK WORLD RADIO 886, NHK WORLD RADIO 887, NHK WORLD RADIO 888, NHK WORLD RADIO 889, NHK WORLD RADIO 890, NHK WORLD RADIO 891, NHK WORLD RADIO 892, NHK WORLD RADIO 893, NHK WORLD RADIO 894, NHK WORLD RADIO 895, NHK WORLD RADIO 896, NHK WORLD RADIO 897, NHK WORLD RADIO 898, NHK WORLD RADIO 899, NHK WORLD RADIO 900, NHK WORLD RADIO 901, NHK WORLD RADIO 902, NHK WORLD RADIO 903, NHK WORLD RADIO 904, NHK WORLD RADIO 905, NHK WORLD RADIO 906, NHK WORLD RADIO 907, NHK WORLD RADIO 908, NHK WORLD RADIO 909, NHK WORLD RADIO 910, NHK WORLD RADIO 911, NHK WORLD RADIO 912, NHK WORLD RADIO 913, NHK WORLD RADIO 914, NHK WORLD RADIO 915, NHK WORLD RADIO 916, NHK WORLD RADIO 917, NHK WORLD RADIO 918, NHK WORLD RADIO 919, NHK WORLD RADIO 920, NHK WORLD RADIO 921, NHK WORLD RADIO 922, NHK WORLD RADIO 923, NHK WORLD RADIO 924, NHK WORLD RADIO 925, NHK WORLD RADIO 926, NHK WORLD RADIO 927, NHK WORLD RADIO 928, NHK WORLD RADIO 929, NHK WORLD RADIO 930, NHK WORLD RADIO 931, NHK WORLD RADIO 932, NHK WORLD RADIO 933, NHK WORLD RADIO 934, NHK WORLD RADIO 935, NHK WORLD RADIO 936, NHK WORLD RADIO 937, NHK WORLD RADIO 938, NHK WORLD RADIO 939, NHK WORLD RADIO 940, NHK WORLD RADIO 941, NHK WORLD RADIO 942, NHK WORLD RADIO 943, NHK WORLD RADIO 944, NHK WORLD RADIO 945, NHK WORLD RADIO 946, NHK WORLD RADIO 947, NHK WORLD RADIO 948, NHK WORLD RADIO 949, NHK WORLD RADIO 950, NHK WORLD RADIO 951, NHK WORLD RADIO 952, NHK WORLD RADIO 953, NHK WORLD RADIO 954, NHK WORLD RADIO 955, NHK WORLD RADIO 956, NHK WORLD RADIO 957, NHK WORLD RADIO 958, NHK WORLD RADIO 959, NHK WORLD RADIO 960, NHK WORLD RADIO 961, NHK WORLD RADIO 962, NHK WORLD RADIO 963, NHK WORLD RADIO 964, NHK WORLD RADIO 965, NHK WORLD RADIO 966, NHK WORLD RADIO 967, NHK WORLD RADIO 968, NHK WORLD RADIO 969, NHK WORLD RADIO 970, NHK WORLD RADIO 971, NHK WORLD RADIO 972, NHK WORLD RADIO 973, NHK WORLD RADIO 974, NHK WORLD RADIO 975, NHK WORLD RADIO 976, NHK WORLD

## 특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장5,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인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 특점 Clifton 콘도

호수를 품고있는 멋진 단지, 방2, 화장2, 완전히 업데이트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385,000**



## 특점 Falls Church 콘도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넓은 창문, 잔디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10,000**



##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한 타운홈, 1,2,3층 구조, 리노베이트한 부엌 (New Cabinet, Granite Countertop, SS Appliances), 새로 꾸민 화장실들, 방3, 화장2, 넓고 환한 집

**\$44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츠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 건강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April, 1 2026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117세 여성의 식단 vs 과학적 장수 식단

‘조장수 비결은 바로 이 음식이었다.’  
이런 정보는 언제나 흥미롭다. 하지만  
특정 식품 하나로 ‘100년 넘는 수명과 건강’  
을 이뤘다는 말은 과학이 아닌 환상에  
가깝다.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조장수  
인이 자주 먹었다는 특정 음식 하나를 찾  
기보다, 그들의 식단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스페인 연구팀이 공개한  
‘116세 조장수인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의 식단표’를 모두 펼쳐 놓고 그 구조를 들  
여다봤다.

여기에 ‘조장수인 연구자’로 유명한 심  
장 전문의 에릭 토폴 박사의 하루 식단도  
비교 분석했다. 토폴 박사는 조장수 연구  
를 포함해 1300건이 넘는 논문을 썼고, 37  
만 건이 넘는 인용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현존하는 의료 분야 학자 중 가장 많이 인  
용된 10인 중 한 명이다.

전자는 전통적 지중해 식단의 완성형  
이자 노인 맞춤형으로 조장수를 이끈 식  
단, 후자는 조장수인을 분석해 과학  
적으로 만들어진 최적의 식단  
이다. 둘을 나란히 놓으면, 조  
장수를 이끄는 식단의 구  
조가 꽤 선명해진다.  
또 두 식단의 교집  
합에 ‘장수’의 비  
밀이 숨어 있  
었다.

◆모레라  
의 장수 비결  
=스페인 연  
구팀은 2023년,  
당시 116세였던 모  
레라의 혈액·소변·타액·대  
변 샘플을 채취했고 생활  
습관 및 건강 상태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세계 최고령 할머니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1907년 3월 4일 ~ 2024년 8월 19일(117세로 영면)



토대로 지능·전사체·대사체·단백질체·  
미생물군집·후성유전체 지형을 포괄  
적으로 분석하는 다중오믹스 분석을  
수행했다. 모레라는 이듬해 117세  
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연구 결과 모레라의 생  
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  
이보다 스물세 살 젊었  
다. 연구팀은 2025년 10  
월 학술지 ‘셀(Cell)’에 낸  
논문에서 그의 장수 비결  
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희귀한  
유전자 변이, 젊은 후성유전체, 낮  
은 염증 수준, 나이에 비해 매우 젊  
은 장내 박테리아가 그것이다.

모레라가 조장수할 수 있  
었던 건 그만큼 가진 타고  
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 실  
제로 모레라의 면역 체  
계는 비정상적으로 튼튼  
했다. 그의 기억 T세포엔

Yogurt  
요거트

장내 환경을 매일 동일한  
항염증의 방향으로 바꿔  
주는 ‘면역 리셋 루틴’

Olive oil  
올리브 오일

강력한 항염효과로  
혈압을 낮추고 심혈  
관 질환 위험감소



감염과 암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방어  
한 ‘기록’이 무수히 남아 있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유  
전적 변이도 뇌와 심장을 지켜줬다. 또  
일부 지표에서 모레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젊은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더  
좋게 관찰됐다. 이견 후천적 노력이나  
생활 습관 변화로 얻을 수는 없는 타고  
난 이점이다.

후천적 생활 습관이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 모레라의 장내 항염증성 미생  
물이 매우 풍부했는데, 특히 비피도박  
테리움이 많았다. 이는 다른 조장수자  
에게도 높은 수준으로 있다는 게 보고  
된 바 있다. 훌륭한 장내 미생물은 몸  
의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당뇨  
병·치매 등 치명적 질병들을 효과적으  
로 차단한다.

장내 미생물은 식습관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 모레라가 수십 년간 반복해  
온 식단의 구조가 건강한 미생물 생태  
계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모레라가 사망 전에 20년 넘게 유지해  
온 메뉴 3주치를 기록해 놨다. 그의 아  
침 식사는 대체로 8가지 곡물로 만든  
시리얼과 우유 스무디, 그리고 단백질  
이었다. 간식으로는 요거트가 매일,  
그것도 세 차례씩 등장했다. 점심과 저녁  
은 채소를 주로 섭취하는데, 통으로 먹  
기보다 으갠 형태로 섭취했다.

고령인 모레라가 채소를 쉽게 섭취  
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브로콜리·감  
자·콜리플라워, 애호박·콩류, 아티초  
크·완두 조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리브오일은 점심, 저녁 메뉴에  
자주 나타났다.

단백질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생  
선과 닭이나 칠면조, 육류가 점심·저녁  
메뉴에 등장했고, 달걀에서 추출한 단  
백질도 매일 들어갔다. 소시지·햄, 돼지  
고기·소고기, 햄버거 같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도 드물지 않게 등장했다.

이정봉 기자  
▶▶ 3면 ‘117세 여성의 식단’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 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룸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 봄철 심해지는 불청객 가래, 건강 이상 체크가능자

## 호흡기 지키는 가래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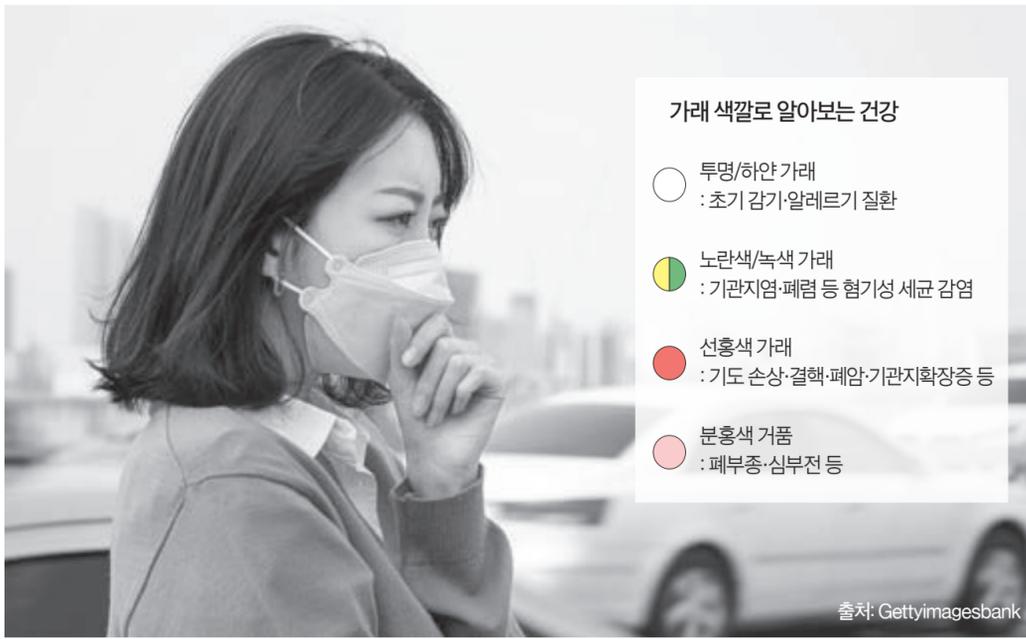
봄은 가래가 심해지는 계절이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목에 가래가 풀기 시작한다. 불편한 건 가래만이 아니다. 가래가 생길 때마다 뱉어야 할지, 삼켜야 할지 고민까지 따라온다. 그런데 이 선택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삼키는 것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잘못 뱉으면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폐결핵 환자, 가래 삼키면 2차 감염

가래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정상적인 분비물이다. 매일 분비되지만 무의식중에 삼키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러다 외부 자극이나 질환으로 양이 많아지고 점도가 높아지면 비로소 존재를 느끼게 된다.

봄은 그 자극이 유독 많은 계절이다.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송창은 교수는 “봄철에 잘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나 봄철 기후 여건으로 호흡기 상피세포가 자극·손상받으면 이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수양성 또는 점액성 분비물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원인은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다. 이들 물질이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면 상기도 및 하기도 점막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분비물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콧물과 가래다. 알레르기 비염·천식 환자라면 꽃가루가 증상을 악화시켜 가래가 심해질 수 있다.

건조한 공기와 큰 일교차도 한몫한다. 급격한 기온 변화는 기도 점막의 과민 반응을 일으켜 점액 분비를 늘리고, 건조한 공기는 점막의 방어막에 균열을 만들어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두



### 가래 색깔로 알아보는 건강

- 투명/하얀 가래  
: 초기 감기·알레르기 질환
- 노란색/녹색 가래  
: 기관지염·폐렴 등 혐기성 세균 감염
- 선홍색 가래  
: 기도 손상·결핵·폐암·기관지확장증 등
- 분홍색 거품  
: 폐부종·심부전 등

출처: Gettyimagesbank

평소와 다른 가래가 느껴진다면 삼키기보다 뱉어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경부외과 노혜은 교수는 “점액층이 얇아지며 미세섬모를 통한 배출 능력이 떨어지고, 끈적한 가래가 정체돼 목이 물감이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환절기마다 기승을 부리는 감기와 그 합병증도 가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가래가 생기면 ‘뱉을까, 삼킬까’ 고민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삼켜도 건강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산에 의해 살균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폐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섞인 가래를 삼키면 소화기관으로 전파돼 장결핵 같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도 반드시 뱉어야 한다. 잘못 흡인되면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꽃가루·미세먼지·일교차로 악화 색·냄새 변했다면 건강 이상 신호 가래 뱉을 땀 간접 감염에 주의

사실 삼킬 수 있어도, 뱉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노혜은 교수는 “가래의 색, 점도, 냄새 등은 호흡기 질환의 진행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가급적 뱉는 것이 진단과 경과 관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가래 색은 몸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다. 투명하거나 흰색이라면 감기 초기나 알레르기 질환인 경우가 많고, 누렇게나 녹색으로 변했다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세균성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선홍색 피가 섞여 있다면 기도 손상·결핵·폐

암·기관지확장증 등을, 분홍색 거품이 동반된다면 폐부종·심부전을 의심해야 하는 응급 신호다. 냄새와 기간도 잘 살펴봐야 한다. 심한 악취가 난다면 폐농양이나 기관지확장증일 가능성이 있고, 3주 이상 지속하거나 만성 기침을 동반한다면 만성 기관지염·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다만 가래를 빼내려 과도하게 헛기침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송창은 교수는 “과도하게 헛기침을 하면 후두나 인두 점막이 자극돼 오히려 가래가 늘어나거나 목 이물감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코가래(후비루)에 대해서도 “코를 세게 풀면 분비물이 중이로 밀려 중이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래로 불편한 날이 계속된다면 원인 감별이 먼저다. 가래를 유발하는 요인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비염·부비동염으로 인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 가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인후두 역류 증은 실제 가래는 없지만 위산이 인후두 점막을 자극해 목 이물감을 유발한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 만큼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 마스크·코 세척 중요, 뱉은 가래는 밀봉

일상 속 예방도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씻고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꽃가루와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송창은 교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알레르기 비염·천식 환자는 외출을 줄이거나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고 하루 1.5L 이상 수분을 섭취하면 가래 점도가 낮아져 배출이 수월해진다. 흡연은 가래 생성을 늘리고 배출 능력까지 떨어뜨리므로 삼가야 한다.

뱉은 가래를 잘 처리하는 에티켓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침·재채기로 튀어나온 침방울은 대부분 1~2m 이내의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아주 작은 입자는 공기 중에 수시간씩 떠다니며 주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

따라서 코와 입을 가리고 가래를 뱉고, 가래 묻은 휴지는 뚜껑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뒤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노혜은 교수는 “특히 결핵은 비말핵 형태로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어 휴지를 밀폐 용기나 비닐로 밀봉해 폐기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기자

# 염증 진정시키지만 조직 손상... 스테로이드의 두 얼굴

## 반복해 맞으면 뼈의 질에 악영향 조직 회복·강화하는 치료 고려해야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원장님, 시원하게 뼈 주사 한 방만 놔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늘 잠시 멈춰서게 된다. 요청 자체는 너무 익숙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며, 허리가 빠근할 때 많은 환자가 시원한 한

방을 기대하며 진료실을 찾는다. 주사 한 방이면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서다. 환자들이 부르는 주사 이름은 다양하다. 뼈 주사, 염증 주사, 관절 주사, 뼈에 좋은 주사... 그러나 이들의 본질은 하나다.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다.

스테로이드는 급성 염증이 극심해 밤잠을 설치거나 관절이 붓고 열이 펴

필 날 때 그야말로 최고의 소방차 역할을 한다. 불길을 빠르게 강력하게 잡아 주는 만큼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소방차가 불을 끈 뒤에도 계속 불러대는 경우가 많아서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주변 조직에 미묘한 손상을 누적시킨다. 힘



줄을 얇아지게 하고 연골을 메마르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뼈의 질(質)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해서 맞으면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 기준은 같은 부위에, 3~6개월에 한 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간격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환자들은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다른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어서요”라며 스테로이드 주사 처방을 원한다. 다행히 현대 의학에는 좋은 대안들이 있다. PDRN(Polydeoxyribo nucleotide) 주사는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PRP(Platelet-Rich Plasma) 주사는 환자 본인의 성장 인자를 이용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한다. 히알루론산이나 플라젠 기반 주사는 관절의 윤활과 충격 흡수 기능을 보강해준다. 물론 이 치료들은 스테로이드만큼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 통증을 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실제로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길을 선택한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시간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며, 근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소

방차는 위급 상황에 꼭 필요하다.

조광형 새길병원 원장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러츠빌 롯데 워터 센터(한미)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미(한+만)과 챔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입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중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처치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중의학 박사 연태홍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형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시상과 사사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Suite 101, Annandale, VA 22003

# 장수 공통점은 '요거트 매일+단백질 조금씩 자주'

## Avocado 아보카도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



## Fish 생선(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DHA, EPA)이 풍부하여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



건강한 노화를 위해 식습관 개선을 강조하는 심장 전문의

에릭 토폴

1954년 6월 26일~(71세)



▶ 1면 '117세 여성의 식단'에서 이어집니다

통상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암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레라의 식단의 전체 구조는 채소+올리브유+요거트의 조합이다. 하루에 세번씩 먹은 플레인 요거트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공급을 담당하고, 부드러운 채소가 그 미생물의 먹이를 공급하며 여러 필수 미네랄을 몸에 채워준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답게 거의 모든 점심과 저녁 메뉴에 올리브 오일을 포함시켜 건강한 지방을 공급했다. 그리고 이 뼈대 위에 단백질이 형태를 바꾸며 얹히는 구성이다. 단백질의 경우, 한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전체 식단 속에 분산시켜 근육 감소를 막았다.

토폴 박사의 식단은 현대 과학이 도출한 지속 가능한 최적화 버전이다. 그는 아침 식사로 블랙 커피 1잔과 무지방 그릭 요거트, 저당 그레놀라, 블루베리나 딸기를 섭취했다. 토폴 박사는 "그레놀라는 설탕이 적게 들어가 있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얼리 버드'라는 브랜드를 택했다.

점심으로는 호두·아몬드·땅콩 등 한 줌의 견과류를 먹었다. 다만 지인과 밖에서 식사를 할 때엔 샐러드를 주문했다. 견과류로 인한 신장 결석을 막기 위

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데 신경 썼다.

저녁 메뉴는 상추·루콜라와 당근·토마토·아보카도 그리고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뿌리고 치즈를 넣은 샐러드에 가끔 연어 등의 생선을 곁들였다. 저녁 식사 후엔 거의 먹지 않지만, 배고프다면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었다. 가끔 칼로리가 낮은 레몬쿠키를 먹기도 한다.

모레라 식단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토폴 박사는 붉은 고기를 지난 45년 동안 전혀 먹지 않았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붉은 고기는 적게 먹을수록, 가공이 덜 된 것을 먹을수록 좋다"며 "먹더라도 가끔씩, 제대로 조리하고, 포장되지 않은 생고기를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두 식단에 확연한 교집합이 있다. 복잡한 레시피 대신 본인이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라는 점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블루베리, 딸기, 블랙커피, 아도 매일 자주 먹을 수 없다 면 식사가 아니라고 역이다. 즐 겁 게 먹을 수 없다면 장수의 이점도 사라



## '초장수인 연구' 토폴 박사의 식단 아침엔 요거트·저당 그레놀라 생선 등 단백질은 조금씩 자주 매일 먹기 단순한 구조가 공통점

진다. 세부 구조를 보면 이렇다.

첫째, '요거트'의 일상화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관리하는 요거트를 식단의 고정축으로 뒀다. 모레라는 하루 세 차례나 먹었고, 토폴 박사는 그릭 요거트를 아침 루틴으로 삼았다. 건강한 균을 장에 공급하는 동시에 단백질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둘째, 지방에 대한 관점이 비슷하다. 모레라의 식단에 올리브오일이 반복 등장하고 생선을 때때로 먹었다. 토폴 박사의 식단 역시 올리브오일과 아보카도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두 사람은 '착한 지방'을 매일 듬뿍 섭취했다.

셋째,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섭취한다. 모레라는 하루 식단 구조에 단백질이 여러 번 들어 있다. 토폴 박사 역시 단백질을 빠

짐없이 넣었다. 영양 전문가 사이에서도 하루 섭취 단백질에 대한 권고량은 차이가 크다. 단백질은 약처럼 매일 조금씩 자주 보충하는 게 좋다. 토폴 박사는 "단백질은 몸무게 1kg당 최대 1.2g까지 섭취해도 괜찮다"며 "하지만 이를 전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면 체내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 닭고기 등을 먹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식단 구조가 단순해 지속 가능하다. 모레라의 식단은 노년에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고, 토폴 박사의 식단은 평생 매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 하려면 이렇게=두 사람이 먹은 식품이 아니라 식단 구조를 흉내 내면 된다. 우선 요거트를 식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루 한번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두 번까지 요거트 섭취를 식사 전후 루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내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다. 단, 당이 들어간 요거트가 아니라 무지방 플레인, 또한 저지방이나 무지방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채소는 반드시 올리브오일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 샐러드를 매일 먹는 게 어렵다면 채소나 나물 반찬에



▶ 1면 '117세 여성의 식단'에서 이어집니다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어보는 걸로 시작한다. 매일 아침 약듯 한 손가락씩 먹기보다 매끼 반찬에 곁들이는 식으로 먹는 게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인다.

단백질을 끼니마다 쪼개서 넣는 것도 중요하다. 저녁 한 끼 고기 파티를 하는 대신, 아침에 달걀, 점심에 견과류나 콩, 저녁에 생선을 먹는 식으로 단백질을 자주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다. 모레라의 식단에 계란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매일 등장하는데, 이는 단백질 보충제로 추정된다. 단백질 요리를 추가하기 힘들다면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몸에 나쁜 건 집에 두지 마라.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다. 토폴 박사는 토르티야 칩이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가끔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결코 집에 쟁여두지 않는다. 나쁜 음식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정봉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수, 9am~3pm  
토, 9am~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금, 9am~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 “대동맥류 수술 부담 줄인 스텐트 시술, 고위험군도 안전”

**인터뷰** 한영진 교수  
서울아산병원 혈관외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응급실 도착 전 절반, 응급실에서 다시 절반, 수술실에서 또 그 절반이 사망하던 질환입니다.” 서울아산병원 혈관외과 한영진 교수는 대동맥류 파열의 치명성을 이같이 표현했다. 대동맥류는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어 혈관이 파열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의료 현장의 풍경은 달라졌다.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며 조기에 발견되는 사례가 늘었고, ‘스텐트 그래프트(금속 망으로 된 인조혈관) 삽입술’이 보편화하며 치료 문턱도 낮아진 덕분이다. 한 교수를 만나 대동맥류 치료의 변화와 최신 전략을 들어봤다.

화·흡연·고혈압·고지혈증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있다.  
“동맥 자체에는 감각이나 신경이 없어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된다. 혈관이 급격히 확장돼 주변 장기를 압박할 경우 통증·구토·위 팽창 등이 나타나고, 감염·염증이 동반되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흔치 않은 사례다. 대개 뚜렷한 전조 없이 지내다 파열 단계에 이르러서야 극심한 통증과 쇼크가 동반되는데, 이때는 이미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이다.”

증상 없고 파열 전 사망률 80% 넘어 1cm 미만 절개로 신체적인 부담 적어 특별한 합병증 없으면 2~3일 내 퇴원



한영진 교수는 “대동맥류 치료 목적은 파열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커 혈관 내 치료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삽입한 스텐트 그래프트를 위아래 정상 혈관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와 적절한 각도 등 해부학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회복 속도와 안전성은 어떤가.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은 절개 범위가 작아 회복이 빠르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2~3일 내 퇴원이 가능하다. 시술의 안전성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됐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개복 수술의 30일 이내 사망률은 3~4% 수준이지만, 혈관 내 치료는 약 1%로 보고된다. 경험이 풍부한 대형 병원에서는 각각 1%, 0.5%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텐트 시술 보편화로 생긴 변화는.  
“과거에는 대동맥류가 파열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검진으로 무증상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부담이 적은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이 보편화하면서 조기에 치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 유연한 치료 설계도 가능해졌다. 항암 치료 중 감염성 대동맥류가 발생한 위암 말기 환자에서 개복 수술 대신 스텐트 그래프트를 먼저 삽입해 파열 위험을 차단한 뒤 항암 치료를 이어간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전신 상태나 동반 질환으로 개복이 어려운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이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전할 조언은.  
“대동맥류를 진단받아 추적 관찰 중이라면 정기 검사를 빠짐없이 받고, 치료 기준에 도달하면 적절한 시점에 치료받아야 한다. 스텐트 시술 후에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연 1회 정도 정기 추적 관찰을 통해 기구 변형이나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고, 파열을 예방해야 한다.”

김가영 기자

-대동맥류는 어떤 질환인가.

“대동맥류는 가장 굵은 혈관인 대동맥이 정상 직경의 1.5배 이상 확장된 상태를 뜻한다. 혈관 벽의 연결 구조가 손상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기며, 한번 약해진 벽은 동맥압을 견디지 못하고 점차 커지다가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흉부와 복부 대동맥류로 나뉘지만, 위험성과 치료 원칙은 유사하다. 동맥경화와 연관된 병태로 노

대동맥류는 증상이 없어도 언제 파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진단 후 3년 내 파열 또는 사망 위험이 60%를 넘고, 파열 시 사망률은 80~90%에 달한다. 특히 흉부 대동맥류는 9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위험한 대동맥류 환자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동맥류는 나이 자체가 중요한 위험 인자다. 평균 수명이 늘며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것이 환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 건강검진 활성화와 의료 수준 향상으로 복부 초음파 시행이 늘면서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진단 및 치료 기준이 궁금하다.

“대동맥류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일정 크기 이상이면 90% 이상 진단이 가능하며, 크기가 작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치료는 복부 대동맥 직경이 남성 5.5cm, 여성 5cm 이상일 때 시행하며, 그보다 작더라도 1년에 1cm 이상 빠르게 커지면 적응증에 해당한다.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대동맥류는 점차 커지는 특징이 있어 6개월에서

2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권장된다.”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방법은 크게 수술과 혈관 내 치료로 나뉜다. 수술은 늘어난 혈관을 절제해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복부나 흉부를 절개해야 한다. 최근 널리 시행되는 혈관 내 치료는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통해 스텐트 그래프트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혈류가 스텐트 내부로만 흐르도록 유도해 동맥류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차단하고, 파열을 예방한다. 절개 범위가 1cm 미만인 최소침습 시술로, 수술보다 신체적 부담이 적다.”

-스텐트 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자는.

“대동맥류 환자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폐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는 개복 수술의 위험이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 모식도

가느다란 관(카테터)으로 삽입된 스텐트 그래프트는 대동맥 안에서 펼쳐져 약해진 혈관을 내부에서 지지한다. [사진 메드트로닉]

## 미토콘드리아 효율 극대화... 피부 에너지 되살려

40년 세포 기술 집약해 완성  
피부 시술 효과도 오래 지속

꾸준히 관리해도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수분을 채워도 금세 건조해지고, 좋다는 시술을 받아도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피부 세포의 기능 약화를 꼽는다.

다. 차음의 ‘미토 셀부스터(Mito Cell-Booster)’는 세포의 떨어진 활력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토 셀부스터는 차병원·차바이오 그룹의 40년 세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차음의 첫 세포 부스터 시술이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해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세포의 에너지 저하를 개선하고, 피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린다. 미토콘

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 물질인 ATP(Adenosine Triphosphate)를 생성하는 기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 ▶탄력 감소 ▶색소 침착 ▶주름 발생 ▶피부 건조 등 다양한 노화 증상과 함께 염증 반응 증가, 상처 치유력 저하 같은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기존 ‘혈소판 풍부 혈장(PRP)’ 시술은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를 혈소판에 국한해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자신의



차음 피부성형클리닉 진석인 교수가 미토콘드리아 기반 세포 부스터 시술인 ‘미토 셀부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차음]

혈액을 원심 분리 후 중간층에 모인 혈소판만 사용하고 상층에 있는 혈장은

대부분 폐기한다. 반면에 차음은 미토콘드리아가 혈소판뿐 아니라 혈장에도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혈소판과 혈장을 함께 활용한다. 여기에 특수 시약으로 원심 분리 과정에서 소실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효과적으로 농축, 피부 세포에 전달되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피부 세포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 리프팅이나 레이저 등 피부 시술의 효과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현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끈다.

하지수 기자

# 채여혜 한의원

##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한약 (치료제, 보약)**

**교통사고 전문**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편두통, 경부통, 요통, 오십견, 좌골신경통,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근섬유통 등)
-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전문
- 불임, 생리통, 갱년기증상,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 구안와사 (안면마비)
- ADHD (과잉행동장애), PTSD (외상후 증후군)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수술후 후유증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식도염 등), 순환장애, 수족냉증

한국산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 국의대사(国医大师)
- 연정화(颜正华) 교수님게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석사, 박사
- 임상 26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홈페이지: WWW.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전화 예약환자에 한함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26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노후에 혼자 살면 돈 더 든다

혼자 노후를 보내는 ‘솔로 에이징’은 드문 일이 아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다. 특히 여성은 31%로 남성(19%)보다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여기서 대부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혼자 살면 추가 비용이 든다. 노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고, 이는 은퇴 자산을 소리 없이 잠식한다.

전문가들이 혼자 사는 숨은 비용으로 꼽는 것은 서비스 비용이다. 혼자 살면 가구를 옮기고 병원에 가고 반려 동물을 돌보는 일상적인 생활을 모두 누군가의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플랫폼 태스크라빗에 따르면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는 시간당 35달러 이상이다. 의료 이동 서비스는 회당 50~150달러, 핏시터는 하루 25~100달러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매달 200~400달러를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거 비용은 혼자 산다고 크게 줄지 않는다. 전기와 인터넷, 수도, 재산세, 보험 등 고정비는 1명이든 2명이든 비슷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료 142달러와 인터넷 70달러, 수도 60달러, 재산세 248달러, 주택 보험 202달러 등



혼자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혼자 살 때 비용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 독자  
주거 비용 크게 줄지 않고  
가구 옮기고 병원 가도 돈  
숨은 은퇴 비용 대비해야

총 722달러는 혼자 살아도 매달 나간다. 하지만 혼자 살면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다운사

이징이나 공동 주거를 통해 주거비를 30%~50%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상금도 넉넉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혼자 사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재가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33달러 이상이다. 식료품과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연 49달러 이상, 의료 알림 시스템은 월 20~60달러 수준이다. 미리 지역 서비

스 업체를 조사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요양비용 부담은 더 크다. 65세가 되면 약 70% 확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재가 돌봄은 시간당 33달러, 연간 약 3만5000달러 수준이지만 어시스티드 리빙은 월 평균 5900달러, 연간 약 7만1000달러에 이른다. 요양원은 연 10만 달러 이상이 든다.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는 이들은 대체로 전문 서비스를 더 빨리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50대에 장기요양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각 주의 메디케이드 제도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의료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혼자 사는 노년층은 외식이나 쇼핑, 여행, 모임 참여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용을 줄이려면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센터에 미리 참여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다행인 것은 이런 비용은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 주택 규모를 줄여 자산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를 만든다. 또 장기요양 보험과 의료 의사결정 문서 등을 준비하면 재정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 부부 소셜연금 3대 포인트 알면 은퇴 설계 쉽다

소득 기록·수령 시점·은퇴 예산 파악 수년 전 좌우

소셜연금도 신청할 나이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소셜연금 액수를 좌우하고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올해 연말 이전에 정리해두면 은퇴 설계에 두고두고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소득 기록 점검이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매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소득이 담긴 개인별 이력 데이터가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월별 소셜연금액을 산정한다. 이 기록은 ‘마이 소셜 시큐리티(my Social Security)’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을 확인할 때는 각 연도의 소득이 실제 소득과 세금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는 연 소득 18만4500달러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기록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표시될 수 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제도상 정상적인 처리다.

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사회보장국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정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소득 기록은 향후 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가 각자 언제 소셜연금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도 예상 수령액을 가늠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는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주는 도구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 배우자의 전체

은퇴 연령(FRA) 기준 수령액을 알고 있다면 배우자 연금도 추정할 수 있다.

최적의 신청 시점은 재정 상황과 기대 수명에 따라 다르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가능한 한 수령을 늦추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한쪽의 소득이 훨씬 많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 초기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고소득 배우자가 신청해 전체 가구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후 저소득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보다 많은 경우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셜연금이 전체 은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확히 파악한다. 부부가 매달 받을 예상 연금액을 계산한 뒤, 이를 은퇴 후 예상 생활비에서 빼서 부족분이 나온다.

이 부족분이 바로 근로소득이나 개인 저축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다.

## 무빈소로 작별 ‘작은 장례’ 늘어난다

1인 가구 증가에 장례 문화도 변화  
조문객 안받거나 절차·일정 최소화

“조용히 가족끼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고인의 뜻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복도 한쪽에서 만난 상주 임정준(55)씨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임씨의 등 뒤로는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들 모습만 눈에 들어올 뿐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인의 빈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조문객도 받지 않은 채 가족들만 모여 고인을 안치·입관·발인하는 이른바 ‘무빈소 장례식’이었기 때문이다. 임씨는 “고인은 생전에도 제사상에 공들이지 말고 간소하게 하라고 수차례 당부하곤 하셨다”며 “고인의 뜻에 따라 조문객을 맞느라 정신없는 장례식 대신 가족들끼리 차분히 고인을

추억하며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말한 뒤 화장장으로 향했다.

무빈소 장례식을 선택한 건 임씨 가족만이 아니었다. 장례식장 복도에 비치된 안내판에는 임씨 말고도 다수의 상주 이름이 적힌 무빈소 장례 일정이 소개돼 있었다. 장례지도사 김정훈(46)씨는 “예전에 삼일장이 기본이었지만 요즘은 장례 상담 세 건 중 한 건은 빈소 없이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무빈소 장례나 2일장 상담일 정도로 장례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장례식장을 수놓는 화려한 행렬도, 상주들이 조문객을 맞는 분주함도 없는 간소한 장례가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건 무엇보다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란 게 장례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의 가족 구조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대가족 대신 핵가족 구조가 주류로 떠올랐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스윙’으로 통산 7번째 1위곡 등극**  
1위곡 가장 많이 보유한 다섯번째 팀  
‘유튜브 제외’ 새 집계방식에도 선전  
8000만 글로벌 팬덤 아미가 뒷받침

그룹 방탄소년단(BTS) 5집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 곡 ‘스윙’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팀 통산 7번째 1위 곡이다. 또 ‘아리랑’ 수록곡 총 14곡 중 ‘스윙’을 포함한 13곡이 해당 차트에 진입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다음 달 4일에 발표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BTS는 지난 2020년 ‘다이너마이트’로 K팝 최초 ‘핫 100’ 1위를 차지했고, ‘새비지 러브’ ‘라이프 고즈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로 해당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BTS는 빌보드 ‘핫 100’ 차트가 만들어진 1958년 이후 1위 곡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다섯 번째 팀이 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그룹의 ‘핫 100’ 1위 곡 보유 순위는 비틀스(20곡), 슈퍼스미스(12곡), 비지스(9곡),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곡 기록을 세웠다”고 부연했다.

음원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합산해 순위를 산정하는 ‘핫 100’ 차트는 대중성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다. 앨범 판매량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빌보드 200’의 경우 팬덤의 위력으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핫 100’ 1위는 대중의 주목을 받아야 달성 가능하다. ‘스윙’은 3월 20일 공개 이후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4000장 등의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 내 다른 차트에서도 좋은 성



## 유튜브 스트리밍 빼고도 BTS 빌보드 핫 100 1위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6-27일(한국시간) 양일 간 미국 NBC ‘더 투나잇 쇼 스타팅 지미 켈런’ 토크쇼에 출연하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신곡 ‘스윙’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발목 부상으로 21일 서울 광화문 공연예선 의자에 앉았던 RM도 이날은 안무를 소화했다. [연합뉴스]

적을 내고 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는 2위, ‘라디오 송 차트’는 18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기록,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스윙’이 수록된 앨범 ‘아리랑’ 역시 실물 앨범 판매량 등이 포함된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스윙’ 외 다른 수록곡들의 성적도 좋다. 민요 아리랑이 삽입된 ‘바디 투 바디’가 ‘핫 100’ 차트 25위에 오른 것을

비롯, ‘홀리건’ 35위, ‘FYA’ 36위 등을 기록했다. 앨범 ‘아리랑’ 수록곡 중 성덕대왕신종 소리와 들어간 ‘넘버 29’를 제외한 13개 노래를 모두 순위권 내에서 줄 세웠다.

BTS는 이번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직후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통해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빌보드는 K팝 그룹에 불리한 방식으로 집계 규정을 바꿔왔다. 지난

2022년 차트에 반영하는 주간 유효 다운로드 횟수를 인당 4건에서 1건으로 축소했다. 올해부터는 빌보드와 유튜브 사이의 갈등으로 유튜브 데이터가 차트 집계 대상에서 빠지면서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제외됐다.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반전시킨 데엔 BTS의 글로벌 팬덤 ‘아미’의 지원이 컸다. 글로벌 ‘아미’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 방탄소년단 커뮤니티 가입자 수만 3410만명



미국 빌보드 X에 올라온 ‘핫 100’ 차트 순위. BTS는 13곡을 모두 순위권 내에 올렸다. [X 캡처]

에 달한다.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훨씬 웃도는 8000만명에 육박한다. BTS가 이달 9일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회 규모로 펼쳐는 스타디움 월드투어도 팬덤 규모를 가늠케 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아미’가 3년 9개월에 달하는 팀의 긴 공백기 동안 결속력이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글로벌 ‘아미’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결집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BTS 팬 3명이 만든 ‘방탄소년단 음원 서포터팀’이라는 이름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는 BTS 음원 스트리밍을 독려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팔로워 2만1000명을 보유한 이 계정 운영진 3명은 한꺼번에 여러 계정으로 스트리밍 횟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팬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빠른 스트리밍이 가능한 앱도 개발 중이다.

홍성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빅뱅·사이니 등의 컴백 성공에서 보듯 K팝 팬덤의 특유의 단단한 결속력은 스타가 잠시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팬 문화가 해외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지·최혜리 기자

## 팬들 잡아둔다...OTT가 쏘아올린 스포츠 대전

**영화·드라마 넘어 스포츠 중계 경쟁**  
KBO 중계 티빙은 월 이용자 731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스포츠 중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즌 내내

팬들을 잡아두는 ‘락인 효과’ 측면에서 일회성 성격이 짙은 공연이나 영화·드라마보다 스포츠의 위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6일 미국 메이저

리그(MLB) 개막식을 시작으로 스포츠 중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뉴욕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맞붙은 개막전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한 이정

후 선수(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출격해 국내 팬들의 관심도 컸다. 넷플릭스는 오는 7월 13일 T-모바일 홈런 Derby, 8월 13일 MLB 옛 필드 오브 드림스(MLB at Field of Dreams)도 중계한다. 넷플릭스는 스포츠 중계 경쟁에는 뒤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다. 미국에선 아마존프라임이 2017년 미국프로풋볼

(NFL) 선데이 나이트 풋볼 중계를 시작으로 프리미어리그, 미국프로농구 등으로 영토를 넓혀왔다. 국내에선 티빙이 2024년부터 한국프로야구(KBO), 쿠광플레이어가 2022년부터 K리그,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리그오브레전드 대회 등을 중계했다.

정은혜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원장**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피어팩스니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 밟지 않고 누른다



## 변신인가



## 배신인가



올 시즌 세 번째 F1 대회인 일본 그랑프리에서 머신들이 피트 레인 앞을 달리고 있다. 가운데 사진은 일본 그랑프리 우승 후 트로피에 키스하는 키미 안토넬리. 아래는 8위에 그친 막스 페르스타펜. 그는 엔진과 전기모터 반반으로 달리는 F1에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우리 팀 요리사에게 운전대를 맡겨도 될 것 같다.”

F1 베테랑 페르난도 알론소(에스틴 마틴)가 올 시즌 경기 방식에 쏟아붓은 직격탄이다. 운전 기술보다 배터리 관리가 더 중요해진 현실을 조롱한 발언이었다. 올 시즌 F1이 하이브리드 머신으로 전환하면서 드라이버 반발이 거세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은 새 시즌 머신 파워유닛을 전면 개편했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비중을 각각 절반씩으로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내연기관 비중이 8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한 셈이다.

지난해는 직선 주로 가속으로 얻은 열에너지로 전기모터를 충전했다. 올해는 시종 전기자동차처럼 속도가 줄어 들 때 발생하는 기계 에너지를 활용한다.

새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드라이버들은 코너 구간을 가속 없이 관성으로 통과해 배터리를 충전한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우승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난처해진다. 막스 페르스타펜(레드불)을 비롯해 여러 드라이버가 직선 주로를 달리다 최고 속도 도달 전 급격히 속도가 떨어지는 ‘슈퍼 클리핑(Super Clipping)’ 현상으로 애를 먹었다. 배터리 방전 직전에 시스템이 엔진 출력을 강제로 가로 채 긴급 충전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4차례 F1 챔피언에 오른 페르스타펜이 가장 화가났다. 지난달 30일 일본도쿄 GP에서 8위에 그친 뒤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7위나 8위로 달리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즐길 수 없다면 대회에 나서는 게 무슨 가치인지 의문”이라면서 “차라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편이 낫다”고 했다. 페르스타펜은 “(전기모터용 부스트 버튼을 눌러 가속하는) 현재 F1은 레이싱 게임 마리오카트를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랜도 노리스(맥라렌)는 “직선 구간에서 시속이 갑자기 30~40km 가량 뚝 떨어지면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샤를 르클레르(페라리)는 “새 시스템은 장난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발의 핵심은 ‘레이싱의 본질 훼손’이다. 드라이버들은 운전 기술보다 배터리 운용 전략 등 부가적 영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로운 경쟁의 서막”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지 러셀(메르세데스)은 “지난해에 비해 머신의 반응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루이스 해밀턴(페라리)도 “추월과 재추월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올 시즌 흐름이 팬들에게 달콤할 것”이라고 긍정적 관점을 드러냈다.

실제로 올 시즌 역전극이 잦아졌다. 배터리 관리라는 새 변수가 추가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경기 양상이 펼쳐졌다. 19세 키미 안토넬리(메르세데스)가 2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대교체와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메르세데스의 약진이다. 새 파워유닛 규정 개발을 주도한 메르세데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머신을 선보이며 팀 드라이버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러셀과 안토넬리가 초반 시즌 두각을 드러낸 배경이다.

논란이 커지자 FIA도 대응에 나섰다. 중동 전쟁으로 일부 대회가 취소돼 발생한 5주간의 휴식기 동안 규정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내연 반 전기 반 F1, 레이싱 본질 논란**  
운전 기술 vs 배터리 운용 전략  
4회 우승 페르스타펜, 은퇴 암시  
‘부스트 버튼’ 마리오카트 비유  
해밀턴 “추월 많아 팬들에게 달콤”

“FIA가 머신의 에너지 관리 방식 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하이브리드 전환이라는 F1의 대전환은 드라이버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속도의 예술’을 추구해온 레이싱 스포츠가 ‘에너지 관리의 과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혼란이 빚어진 셈이다.

장기적으로 F1은 하이브리드를 유지하면서 전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 전기차 레이싱인 포뮬러 E가 이미 존재하지만 F1의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2024년 F1 총 관중은 약 650만명, TV 시청자는 15.5억명을 기록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조차 포뮬러 E가 아닌 F1에 관심을 보이는 이이다.

그렇더라도 F1이 완전 전기차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내연기관을 버리는 순간 F1의 정체성인 ‘엔진 사운드’, 그리고 상업적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FIA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파워유닛 공급 계약을 체결할 상태다. 환경 규제와 레이싱의 본질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지훈 기자

###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외외국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업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교통사고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4월 구인광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 청빙공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 유스그룹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사역 소명 있는 분
-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 사역 소명 있는 분

합법 체류자로 사진 첨부 이력서 stmkumc@gmail.com으로 4월 15일까지 송부바랍니다.

### 운전기사님 모집

본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겨주실 운전기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운전기사 1명
- 주요사역: 교회차량운행(15인승)
- 사역내용: 한달 4~5회(매 주일 예배 전후)
- 자격요건: 취업 결격사유 없는 운전면허소유자
- 사 려: 월 \$800.00
- 접수방법: 이메일 wbs7540@gmail.com (운전면허증사본, 5년간 운전기록)
- 접수마감: 4월 15일 5:00 pm

### 알링턴한인교회

2425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 SD Mechanical

### 테크니션 직원 모집

저희 회사는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회사로 냉장·냉동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office@gmail.com

\* 지원 방법은 이메일이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 WBS

###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 HYUNS HOMECARE

###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한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 메디케어

###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B Universal, Inc.

###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정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 기타 구인

혜반 (HYEBAN)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주방 쿡/헬퍼 구함  
Tel: 443-420-3096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문의: 703-447-4683  
E-mail: Sdmech.office@gmail.com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분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 중고 매매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물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오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차고지 MD  
201-681-4470

##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료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오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 사업체 매매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콧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크노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버지니아

## 구인/사무/직원모집

이민법 사무실, 1-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uit.com

현스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력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알링턴 한인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유스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사역소  
명있으신분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사역소 명  
있으신분  
-> 합법체류자, 사진 첨부 이력서 이메일  
stmkumc@gmail.com로 4/15일까지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알링턴 한인교회에서 운전기사님 모집합니다.  
-운전기사 1명  
-주요사역: 교회 차량 운행 (15인승)  
한달 4-5회 (매 주일 예배 전후)  
-자격요건: 취업에 결정사유 없는 운전면허  
소유자 (운전면허증 사본, 5년간 운전기록)  
-사례: 월 \$800  
-> wbs7540@gmail.com 4/15일까지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파울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함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 (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시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진욱

###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 NO.1

##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브래덕 패밀리 치과

###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타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중앙일보**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형, 유급휴가 \$25.00/hr  
▶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험자 우대/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이팩스 일식당에서 서버 구함.  
영어 필수, 수입보장, 파트타임 가능  
703-628-9168 (문자 요망)

RT-1 쿼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443-618-7141 (문자)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개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쿼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함.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널 수퍼마켓  
- 정육부 매니저 1명,  
-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타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엘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엘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트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메케닉  
▶ 703-220-1400

애견 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  
▶ 571-660-8182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 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페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이  
트한 부엌 (그래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  
킹다수, 교통 편리  
▶ 703-477-3114

페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콘도 렌트**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방 렌트**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 1칸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 전체 렌  
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 (유포)  
문의 :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로튼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워크아웃, 유포, 방2, 거실, 부엌, 욕실, 세탁  
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I-95 1마일,  
즉시 입주 가능  
703-774-4939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 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아웃 전체  
방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  
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양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양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방  
고 조용한 뒷출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방하  
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  
잠만 주무실분  
703-732-1246

첼트리 롯데마트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 하  
우스 방세 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사무실/점포 렌트**

워싱턴 DC 중심가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Mclean 싱글하우스 \$2,790,000  
방7, 화6.5, 5년된 집, 주인의 사랑으로 잘 관  
리된 집, 정선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2. Vienna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코너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3. Annandale 싱글 하우스 \$700,000  
위치 좋은 애난데일, As-is Condition  
▶ 703-625-9909

1. 폴스처치 콘도 \$210,000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  
트, 넓은 창문, 잔디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 헌돈 콘도 \$310,000  
방2, 화2, 예쁘게 새로 단장한 콘도, 맨 윗층,  
새로 업그레이드된 부엌, 새 페인트, 새 조명  
과 전등, 교통 편리  
▶ 703-813-8949

클락스빌 타운홈 \$759,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GIVING TREE PET RESORT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할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폴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방 3, 화 3.5, 차고  
▶301-318-4242/443-668-0453

1. 알링턴 싱글홈 \$1,600,000  
방4, 화3, 3,056sf, 2000년도에 지은집  
2. 찬틀리 싱글홈 \$1,089,000  
방4, 화3.5, 4,237st,  
RT-50 사우스라이딩 경계선  
3. 페어팩스 싱글홈 \$890,000  
방4, 화3, 3038sf, 우슨하이स्क 도보거리,  
집전체 리모델링  
▶703-486-6082

1. 비엔나콘도 \$325,000  
방1,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타운 \$600,000  
방3, 화2.5, 차고1  
3.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703-919-0472

1. 페어팩스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교  
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  
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3. 찬틀리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3레벨 모두 범프 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 된 비교  
적 새 타운홈  
4. 센터빌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703-231-5572

1. 페어팩스 싱글홈 \$1,500,000  
방6, 화5, 차고2, 2018년, 로빈슨하이स्क  
좋은 위치에 전반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페어팩스 싱글홈 \$1,4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3. 비엔나싱글홈 \$1,100,000  
방3, 화장실 3+1, 차고1, 1999년도 집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4. 센터빌타운홈 \$873,000  
방3, 화3+2, 차고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웨스트필드 하이स्क  
▶703-899-899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크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크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햄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2, 지하울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차고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2  
13년된 빅토리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타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 사업체 매매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스태포드)  
웃수선 전문, 저렴한렌트비 (\$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차고 1, 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페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뷰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보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중고 매매 / 기타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티용 밥기계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텐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낄싱홍,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약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울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사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데크,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  
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  
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도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오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트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방법:  
E-mail: Sdmec.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달려,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코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  
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웍스  
▶703-967-4155

##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페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골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자및설치 (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보험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 JGL Construction Inc.

###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EVERSHINE Construction

###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 블라인드 / 틈트

##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담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at makes two of us: 나도 같은 생각이야**

(Keith is working in his yard when his neighbor Will appears ~)

(키스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윌이 온다 ~)

Keith: Good morning Will. Are you taking the day off?  
키스: 안녕 윌. 오늘 하루 직장 쉬는 거야?  
Will: I wouldn't say that.  
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Keith: What would you call it? You're not working.  
키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 안 하잖아.  
Will: I would call it losing my job.  
윌: 실직했다고 해야겠지.

Keith: Oh no! You're the tenth person I know to lose their job this week.  
키스: 아니 저런! 이번 주 들어서만 아는 사람 중에 실직한 경우가 열명째야.  
Will: And I don't think we've seen the worst of it.  
윌: 게다가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어.  
Keith: That makes two of us.  
키스: 나도 같은 생각이야.  
Will: Are you going to be able to hang on to your job?

윌: 그 쪽은 직장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야?  
Keith: It looks good now but you never know what might happen.  
키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  
Will: Well good luck. And call me if you hear about any available jobs. 윌: 그럼 행운을 빌어. 그리고 일자리 소식 들리면 전화 좀 해줘.

**지역할만한 표현**  
▶\*lose (one's) job: 실직하다.  
"She is going to lose her job if she doesn't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녀는 직장에서 쫓겨날 거야.)  
\*hang on to (something): 계속 갖고 있다. 꼭 잡다.  
"You can hang on to the book until you're finished reading it." (그 책 다 읽을 때까지 네가 갖고 있어도 돼.)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열쇠**

(1)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는 듯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름. 호□□□ (4)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구슬. 높고 푸른 하늘에 ~를 뿌려 놓은 듯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광□□ (7) 물을 담아 꽃을 씻거나 과석 따위를 넣어 두는 그릇 (8) 일을 보조하는 사람 (9) 곤죽이 된 진흙이나 개흙이 많이 권 곳. 화물차가 ~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11) 탄알이 최대한 멀리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거리 (13) 공이 골 안으로 들어감 (16) 눈이나 발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두룩하게 만든 것. 농사철에 눈~을 태워 얻는 해충 방제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산불 우려가 크다 (17) 우리 몸 안을 검사하고 관찰하는 기구 (18)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리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 (19) 사망, 상해를 당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곳. 집채의 바깥 (20) 말을 탈 때에 신는 구두의 뒤축에 달려 있는 물건 (22)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 (24) 자그마한 밥상 (26) 젓가락 (27) 봄철에 오는 눈 (29)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름.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옴. □□어□ (30)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

**세로열쇠**

(2) 대포나 총, 활 따위를 쏘는 사람 (3)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 (4) 사람에게 길이 들지 않은 야생의 사나운 짐승 (5) 훌륭한 소질이나 솜씨를 갖춘 사람. 활쏘기의 ~ (6)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 (8) 쌀을 이는데 쓰는 기구 (10) 짐승, 특히 소의 네 다리. 주로 몸을 보신하는 데 쓴다 (12)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하는 경례 (14)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15)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 무□□□ (16)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올리는 데 쓰는 도구 (19) 장기 둘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의 붉은색 말을 쓰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초의 푸른색 말을 쓰는 일 (21) 둘째 아들 (22)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피를 만든 다음 고기, 채소 등의 소를 넣고 빚어서 익혀 만들죠 (23) 봄의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 (25) 상풍 따위를 다른 곳으로 실어냄 (26) 돌아다니며 구경함. 팔도강산을 ~하다 (28) 말(혀)로 울고 그름을 다듬

**스도쿠**

	2	3	4	1	7	9		
	4			3	5			1
	9			6				3
	1	4	3	8				
				7	4		5	8
		7		5			1	4
4	6	8						
				9	6	1	4	
9		1		4	3	6	8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8	9	3	4	5	1	7	6
7	4	1	9	6	8	2	5	3
4	1	4	1	4	1	4	1	4
9	3	5	1	2	7	8	9	4
1	4	3	6	5	9	7	8	2
8	5	2	4	7	1	6	3	9
9	6	7	2	8	3	4	1	5
3	7	4	8	9	2	5	6	1
1	2	8	5	3	6	9	4	7
5	9	6	7	1	4	3	2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크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www.92chickenusa.com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비박스, 도매, 미국 전지역  
문의 : 770-769-7575**

**92K-corn dog  
K-WINGS<sup>TM</sup>  
Korean style Chicken**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타 지역**

**구인**

**알래스카지역**  
\*중식쉐프...0명  
\*스시맨...0명  
취업결격사유없는분  
최고대우, 숙식제공  
(858)337-0982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알래스카 일식당**  
하루매상 \$3,000  
매매가 \$20만  
(408)497-1540  
메세지주시면 연락드림

**알래스카 호텔매매**  
Bethel지역, 13룸  
큰 투자하지 않고  
돈 벌수있는  
절호의 기회~  
(907)545-0326

**덴탈랩매매**  
년매상 \$120만  
주인은퇴매매  
콜롬버스 오하이오주  
문의 이메일 바람  
accutech614@gmail.com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All about US Life!

**RENT**  
부동산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혈  
작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클 터치 (213)675-6877**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GLOBAL MBA  
2026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17 - APRIL 21

Application SUBMIT ONLINE

+82-2-2123-3254 gmba.admissions.ysb@yonsei.ac.kr mba.yonsei.ac.kr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육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